

5.27신흥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
제 10회 글쓰기 대회 수상작
우수상 (인상)

제목: 땅 아래에선
2-8 이*표

주제: 생명, 자유

2025년 5월 5일

1.

세계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느낄 수 없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수업은 계속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인도-파키스탄, 중국-대만, 한국-북한. 학교 밖 세상에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학생들 대부분은 알지 못했고, 곧 있을 시험만 생각할 뿐이었다. 20년, 30년 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전라도 사라지겠지만,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일은 진행되고 있었다. 심지어는 빵을 입에 물고 뛰어가며, 한 손에는 단어를 들고, 눈앞에 지나가는 버스를 애처롭게 보다가, 변을 당한 학생도 있었다. 말 그대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였다. 사실 일이 터지기 몇 주 전부터 땅은 진동했고, 일본에서 대지진이 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쇼츠가 여러 개 올라오기도 했다. 전 지역에 산불이 나고, 타이어 수십 개에서 올라오는 검은 연기가 주목받기도 했다. 다른 때 같았으면 그런 일에 관심도 없었을 우리 할머니가 뉴스를 볼 때마다 문자를 보낼 정도였으니 말 다했다.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정치, 경제, 심지어 과학 분야까지도 긴장 상태였지만, 이 땅과 하늘은 언제나 그대로였기에, 이번에도 그러려니 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겨울 방학이 다가올 무렵이었다. 불안한 정세에 압도되어, 불안하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분위기가 진정될 때까지 집에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고향에 내려가기 전날 내가 엄마에게 물었다. 나는 항상 정치에 관해서라면 불안했다.

“이번 아니면, 언제 내려가니.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데. 정치는 정치인들이 다 알아서 할 거야. 백두산이 터진다고, 터진다고. 내 어렸을 때도 그런 말이 있었지. 할머니한테 이미 연락드렸어. 너 볼 생각에 얼마나 기다리는지, 그러고 계시겠지. 우리가 다음 주나 그다음 주 주말에 간다고 해봐라.”

우리는 가게 위층 사람에게 가게 수도 관리와, 키우고 있는 온실 식물을 맡기고 길을 떠났다. 위층 사람은 내 기억에 5년 전쯤 우리 건물에 세 들어 살기 시작해서, 우리가 가게를 오래 비울 때마다, 식물 관리를 해주었다. 그 대신, 그 사람이 여행을 가면 우리가 그 집 고양이를 맡아 주었고, 식물에 물도 주었다. 하지만 이번 낙항으로 이 3층 건물에서, 위층 사람도, 그 집 고양이도, 나도, 우리 엄마도 재회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나는 언제나 들던 노래를 틀었다. 엄마는 딱히 좋아하시지 않았지

만, 나는 기분 좋았다. 우리 가족은 나와 엄마 두 명이였다. 그때 나는 막 17살에서 18살이 될 무렵이었다. 고향 집에서는 삼촌과 사촌 동생,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삼촌은 엄마보다 3살 위였고, 사촌 동생은 나보다 1살 아래였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70대 후반이었는데, 정확한 연세는 기억나지 않는다.

엄마는 내가 늦은 사춘기를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다. 고향 집에서는 암전히 굴기를 원했다. 그렇지만, 나는 하고 싶은 것이 많았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항상 등산에 갔다. 산 아래에는 할아버지 별장이 있었다. 그곳에는 노란색 마루와 고동색 벽장, 네모난 텔레비전이 있었다. 한쪽에는 닭장이 있었는데, 영문 모를 구멍이 있었지만, 닭은 나가지 않았다.

그 외에도 고향 집에는 내가 그리워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 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라든지, 항상 깜빡하고 놓고 오던 큐브 같은. 열쇠로 여는 문과 그 문을 열면 보이는 창고방, 그 안은 내가 사촌 동생과 숨바꼭질했던 추억이 있다. 삼촌은 고향 집에 내려올 때마다 나에게 자신이 하는 주식을 보여주었다. 또 삼촌이 골프 치는 영상은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모른다.

새벽마다 할머니 손을 잡고 저수지 공원을 빙 돌며 산책하던 것이 즐거웠다. 평상시 도보 여행을 싫어하던 엄마는 무시하고 일을 나갔지만 말이다. 할아버지와 함께 자주 물놀이했던 계곡도 좋아했다.」 또한, 내가 해마다 쓴 일기장 여러 권도 그 집에 있을 것이다.

엄마는 이번에, 한 해 동안 쓴 일기장을 가져가서 금고에 넣자고 했다. 이번 일기장은 가족으로 된 겉표지가 인상적이었다. 그 일기장을 펼치면 내 사소한 고민부터, 그날 있었던 일들, 배운 것들이 정리되지 않고, 펼쳐졌다. 엄마는 내 일기장을 읽고 싶어 했지만, 내가 필사적으로 숨겼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그 속에는 엄마 욕이 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구도로로 내려간 뒤, 금암마을로 방향을 바꾸었다. 하늘은 칙칙한 회색이었다. 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엄마는 자기 노래를 불렀다. 나는 그 노래가 싫어서 부르기를 멈췄다. 그만 부르라는 표시였지만, 엄마는 멈추지 않았다. 차가 고향 집에 도착하고, 나는 여느 때처럼,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인사드렸다. 먼저 와 계시던 삼촌께 인사드리고, 구석에 있던 사촌 동생에게 인사했다. 처음 며칠은 잠만 잤다. 생각보다 사촌 동생은 나를 어색하게 대했고, 나는 삼촌도 사촌 동생도 어색했다. 할머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엄마와 수다를 떠느라 정신없었다. 그 내용을 엿들으면 항상 할아버지 뒷담이었다.

정신없이 자다 보니, 벌써 3일이 지나있었고, 나는 엄마에게 집으로 일찍 가기를 요청했다. 회색빛이었던 하늘은 더 어두워져서 검은색으로 물들었고, 낮인지도 밤인지도 모르게 항상 깜깜했다. 올 때는 눈이 내릴 것은 상상도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하늘에서 눈이 펄펄 내리고 있었다. 엄마는 오늘 저녁 10시에 하는 신년 특선 영화만 보고 가자고 했다. 잠도 오기에, 그냥 그렇게 하세요. 하고, 잠을 잤다. 그러나 불안한 마음에 영화가 시작하기도 전에 눈을 떠서, 엄마를 졸랐고, 엄마는 짜증을 내며, 그럼 가자고 했다. 삼촌은 자기도 가겠다며, 사촌 동생을 데리고 엄마 차에 올랐고, 우리는 고속버스터미널까지 동행해야 했다.

차에 오르니 눈이 너무 많이 와 앞 유리를 모두 가렸다. 삼촌은 현관 계단 옆 빗자루를 보더니, 뛰쳐나가서 들고 왔다. 마당에 있는 눈도 다 삼촌이 치웠다. 군대에서 다 해봤다나

뭐라나. 앞 유리에 쌓인 눈을 치우니, 이제는 대문 앞의 미끄러워 보이는 내리막길이 문제였다. 미끄럽게 언 눈 위에 또 눈이 쌓이고 있었다. 엄마는 미숙한 운전 실력 탓에 이리저리 핸들만 움직이다, 결국 차를 다 망가뜨리며, 그곳을 빠져나왔다. 눈은 생각보다도 더 많이 쌓여있어서, 시속 30km 이상 달릴 수 없었다.

가로등 하나 없는 국도를 달리며, 청명 마을을 지나던 와중이었다. 갑자기 저 멀리 아파트들 가운데에서 밝은 빛이 번쩍었다. 우리는 모두 순간적으로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엄마는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다. 바퀴가 헛돌면서 우리는 눈 속에 갇히게 되었다.

자동차가 멈춘 뒤, 눈발 넘어 시내에서 밤하늘보다 검은 연기가 나는 것이 보였다. 그 연기는 타이어가 불탈 때 나는 연기 같기도 했고, 산불이 났을 때 나는 연기 같기도 했다. 나는 그 섬광을 잠깐 보았는데, 한참 동안 눈앞이 보이지 않았다. 차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눈이 느껴졌다. 매캐한 냄새가 나기도 했다. 그 냄새는 비가 내린 후 나는 흄냄새와도 비슷했다.

“뭘 일래요?”

사촌 동생이 내리는 눈을 손으로 막으며,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물었다. 삼촌은 한숨을 쉬며 열린 차 문을 닫았다. 차에 남아있던 엄마는 다시 시동을 켜고 액셀을 밟았지만, 여전히 차는, 움직이지 않았다.

“차를 버리고 일단 집으로 다시 가자.”

삼촌이 엄마 쪽 창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그때, 땅이 흔들리면서 돌풍이 불어왔다. 눈앞에서 나무들이 심하게 휘어졌다. 곧이어 검정 가루들이 흩날리면서, 차 창문에 붙기 시작했다. 우리는 차와 서로를 붙잡고, 서로 부둥켜안았다. 사촌 동생이 내 팔을 할퀴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채찍처럼 내 얼굴을 때렸다. 엄마는 차 안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날카롭게 비명을 질렀다. 우리 뒤쪽에서 소나무 한 그루가 도로를 덮쳤다. 차가 또 한 번 심하게 흔들렸다.

돌풍은 빠른 속도로 진정되었다. 동시에 차 창문은 눈이 내린 것처럼 다시 뒤덮였다. 내 몸, 어깨에도 가루들이 붙어있길래, 대수롭지 않게 털어냈다. 그때, 엄마가 차 문을 벌컥 열고, 혼비백산해서 도망쳤다. 자세히 보니, 차 창문에 붙은 가루들에서 이따금 날개나 더듬이가 보였다.

“무슨 일이냐고요!”

사촌 동생이 다시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며 삼촌 팔을 붙잡았다.

“빨리 가자니깐!”

삼촌은 크게 소리치며, 사촌 동생의 팔을 강하게 끌었다. 그러자 엄마도 내 손을 잡아끌었다. 엄마가 얼마나 크게 한숨을 쉬는지,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힘겹게 두 번째 발을 내딛기도 전에, 다시 뒤쪽에서 폭풍이 불어왔다. 다시 한번 나무들이 소리를 내며 갈라졌고, 차가 흔들렸다.

잠시 후 바람이 잠잠해졌고, 휘청거리던 나무들이 똑바로 일어섰다. 폭탄 소리가 여러 번 났지만, 무색하게 고요해졌다. 땅은 눈이 내리는 것이 무색하게, 검은색으로 뒤덮였다.

“괜찮나?”

우리 쪽으로 천천히 몸을 돌린 삼촌이 말했다. 삼촌 목소리가 이렇게 어색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다. 삼촌은 사촌 동생에게 괜찮냐고 다시 물었다. 사촌 동생이 흐느끼자, 삼촌은 그녀를 감싸안았다. 삼촌이 그렇게 다정한 사람인 줄은 그때야 알았다. 사방은 검은색으로

물들었고, 핸드폰 불빛만 밝게 빛났다. 사촌 동생의 눈을 보니, 정말 무서워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그런데 갑자기 사촌 동생이 웃기 시작했다. 소리까지 질러 대며 웃었다. 난 그 웃음소리를 절대로 잊지 못할 것이다. 사촌 동생은 그칠 줄 모르고 계속 웃어 댔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신경질적으로 물었다. 그러자 사촌 동생은 자기 손을 깨물었다. 웃음을 멈추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면 하던 버릇이다. 그 방법은 효과가 있었다. 다시 조용해졌다.

한참이 지났지만, 눈 때문에 얼마 가지 못했다. 우리는 도시로, 깊숙한 빌딩 숲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더듬이와 날개들은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었다. 바람을 타고 머리 위로 떨어지기도 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엄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삼촌도 당황한 것처럼 보였지만, 어두워서 어떤 표정인지 알 수는 없었다. 나는 사촌 동생의 손을 만지작거렸다.

“차로 돌아가서, 그걸 어떻게 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엄마는 명령하듯이 삼촌에게 말했다.

“이렇게 차를 버리고 오는 게 아니었는데, 빨리 다시 가자.”

그리고 보니 차를 움직일 생각도 하지 않고, 일단 그 자리를 떠났던 것 같았다.

“폭탄 떨어진 거예요?”

사촌 동생이 물었다. 삼촌은 고개를 끄덕였다.

“전쟁 난 거 아니에요? 큰일 났네.”

그녀는 흥분해서 내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전쟁은 아니겠지. 폭탄도 아닐 거야. 사고가 난 거겠지.”

삼촌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사고 났다고 바람이 이렇게 불어?”

엄마가 삼촌에게 물었다.

“일단 빨리 엄마, 아빠한테 가자.”

삼촌이 대답했다.

“이 가루들은 도대체 뭔데, 눈처럼 내리는 거야?”

엄마는 궁금한 듯 말했다.

“이거 전쟁 난 거 같아.”

내가 말했다.

“진짜 그런 거 같기도.”

사촌 동생이 눈에 빠지며 걷는 것이 힘든지, 헉헉거리며 대답했다.

엄마는 펄쩍 뛰었다.

“우리 집은 어떻게 해? 내 가게는! 지금 폭발이 한번 일어난 것도 아닌데, 어떡하지?”

“그런 거 걱정할 때야? 그리고 폭발은 시내 근처에서 난 것 같은데.”

삼촌이 뒤를 돌아보기 위해 잠시 멈추었다. 그리곤 저 멀리 바라보았다. 나도 돌아봤지만,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운이 좋아서 눈이 멈추면 갈 수도 있겠네.”

삼촌이 말했다.

“일단 살고 봐야지.”

엄마가 말했다.

엄마, 삼촌은 그저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지는 못했다. 그러나 나는 이 일들이 너무 두려웠다. 그와 동시에 무언가 큰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어른들은 재앙이 닥쳐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 같다.

맞은편 도로에는 누구도 보이지 않았다. 길게 뻗은 도로에 우리들만 덩그러니 있는 것 같았다. 단 한 번, 사람을 보긴 했다. 여전히 그곳에 살던 내 고향 친구였다. 그 근처에 집은 그곳밖에 없었다. 그녀는 패딩을 입고 있었고, 배낭을 메고 있었다. 그녀는 초콜릿 한 막대를 내 손에 쥐여 주었다.

그녀는 무언가 알고 있는 듯했다. 커다란 나무들로 우거진 깊은 산속에 있었다는 그녀는, 엄청난 빛을 보지 못했고, 돌풍을 느끼지 못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도망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겼다. 삼촌은 함께 그녀에게 가기를 권했고, 그녀는 당연한 듯이 우리와 동행했다. 또한 태연하게도, 엄마는 그녀가 길에 있던 이유를 궁금해했다.

“지금 혼자 어디 가니?”

엄마가 그녀에게 말했다.

“우리 집 수도가 다 막혔어요. 오늘 아침부터 그랬고요. 부모님은 수도 고치러 철물점에 간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안 와서. 혼자 집에서 나왔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결국 어떻게든 차를 끌고, 끝없는 눈밭을 헤치자, 삼거리가 나왔다. 현수막 몇 개에 구멍이 나 있었다. 사람이 보이지 않았지만, 원래도 활기 없는 곳이었기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여기까지라도 온 것에는, 지름길을 알려준 그녀의 덕이 있었다.

한참을 더 가자, 다리가 보였다. 그 아래로 차가워 보이는 물이 흘러가고 있었다. 우리는, 평소 같았으면 자동차 지나가는 소음만으로도 가려질, 그 차가운 소리를 들었다. 눈이 점점 잿아들고 높은 밤하늘이 다시 보였다. 그러나 회색 구름에 가려서 달과 별은 보이지 않았다. 멀지 않은 곳에 또 폭탄이 떨어졌는지, 검은 연기와 함께 가루들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 위로 먼지와 연기로 범벅이 된 거대한 화환 모양의 구름이 사방으로 구르듯 흩어졌다. 조그마해진 우리 앞에 시내가 다시 들어왔다.

눈이 그쳐서 그런지, 이전보다 빠르게 아스팔트 길을 지날 수 있었다. 시내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배낭과 보따리를 들고 힘겹게 걸어가는 사람들, 아이를 질질 끌다시피 하며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긴 행렬을 이루고 있었다. 나란히 늘어선 집 창문으로 연기가 뭉게뭉게 새어 나왔다. 곳곳마다 유리창이 깨져 있었고, 지붕들은 반쯤 벗겨져 나간 모습이였다. 폭발한 주유소의 지붕이 무너져 내려, 우리는 빙 돌아가야 했다. 시내 끝단에 이르자, 불타는 빌라들이 보였고, 맞은 편엔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엮여 있었다. 한 아저씨가 우리 차를 세우고, 다급한 목소리로 고향 방향으로 가는 도로가 뚫려 있는지 물어보았다. 우리는 눈이 쌓여있고, 나무들이 쓰러져 있어 힘들지만, 우리 차가 온 길은 뚫려 있다고 말했다.

“아마 다른 길은 막혀 있을 겁니다.”

삼촌이 말했다.

“전화도 걸리지 않아서 걱정했는데, 다행이네.”

아저씨가 안도하며 말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어떤 아줌마가 우리에게 물었다. 삼촌은 고개를 저었다.

“빨리 가자.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엄마가 재촉했다.

“가는 길이 막혔대요!”

누군가 큰 소리로 외치자, 뒤이어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살충제, 살충제”라는 말만 알아들을 수 있었다.

얼마 뒤 우리는 평화동을 벗어났다. 평화동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건지 전혀 모르고 있는 듯했다. 영문 모를 폭발이 몇몇 있었을 뿐이었다. 사람들 말을 얼핏 들으니, 가장 많은 폭발이 일어난 곳은 우리 집 근처라는 듯하다. 그 폭발의 충격은 도시 위로 지나가서, 막상 큰 피해는 없었던단다. 상황을 파악하고 싶었지만, 핸드폰 통신은 되지 않았다. 뉴스도 볼 수 없었다. 집 쪽으로 갈수록 가로등이 무너져 있고, 나무들이 쓰러져 있기에, 엄마는 운전을 더욱 조심히 했다.

“우리 집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불길한데.”

내가 불안해서 말했다.

“그럼 어떡할까? 고향으로 돌아갈까?”

엄마가 황당해하며 답했다.

그리곤 더 빠르게 달렸다.

“아까부터 맞은편 도로로 오는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사촌 동생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진짜 유령이 나올 것처럼, 으스스했다. 근처 어디에선가 환청인지 모를 커다란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학산 근처의 요양병원을 지날 때쯤이었다. 커브 길을 돌자, 나무 한 그루가 비스듬히 쓰러져 있었다. 엄마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큰 비명을 지르면서 밟았다. 차는 커다란 나무의 몸통을 으깬다. 그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엄마는 갓길에 차를 세웠고, 우리는 모두 차에서 내렸다. 나무는 혈색을 잃고, 주저앉은 것처럼 보였다. 마치 살점이 뜯긴 사람처럼. 삼촌은 가방 두 개를 들고 왔다.

“가방은 차에 두고 오지 그래. 집이 근처인데. 잠깐 들렀다가, 차로 다시 돌아와서, 고속 버스터미널도 가봐야지.”

엄마가 말했다.

“하지만 길이 막혔잖아. 혹시 모르니까 차 속의 물건은 다 챙기자. 누가 훔쳐 가면 어떡해.”

삼촌이 짜증 섞인 말투로 대답했다. 그러고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면서 가방을 끌고 저만치 걸어갔다. 이때만 해도 삼촌의 몸집은 꽤 뚱뚱했다. 엄마는 나의 손을 잡아끌다시피 하며 데리고 갔다.

커브 길에 쓰러져 있는 나무를 가까스로 넘자, 뒤쪽에서 구급차 한 대가 달려와 멈춰 섰다. 자세히 보니, 커다란 사이렌 소리를 내던 그 차였다. 신음이 들려왔다. 아저씨 한 명이 차에서 뛰어나와 우리에게 소리쳤다.

“좀 도와주세요. 차 안에 중환자 세 명이 있습니다. 당장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해요. 긴급 상황입니다!”

“우리도 긴급 상황이에요. 우리 애가 세 명이나 있는데 뭘 그래요.”

엄마가 망설이자, 옆에 있던 삼촌이 엄마에게 말했다.

“빨리 가자. 어서! 여기서 저 사람들을 도와주느라고 발이 묶이면, 어떻게 해. 우리가 뭘 도와줄 수 있겠어.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까, 얼른 가야 해.”

삼촌이 다급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재촉했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촌 동생이 말했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그 중환자들은 일반적인 상처로 신음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았다.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그걸 말이라고 하니?”

내가 말했다.

나는 고향 친구가 옆에서 숨죽이는 것을 보고 그녀의 손을 잡아끌었다.

우리는 계속 걷기 시작했다.

뒤에서 아저씨가 우리 가족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것 또한 환청인 듯, 누구도 반응하지 않았고, 그 목소리가 잦아들자, 아저씨가 쓰러지는 소리가 났다.

2.

나는 재빨리 달려가 가장 먼저 동 초입에 도착했다. 굽이친 도로와 오르막길 너머로 7층이 넘지 않는 작은 아파트들이 보였다. 언뜻 보기에 아파트들은 달라진 것이 없었다. 구멍이 송송 뚫린 바닥과 건물 벽을 제외하면 말이다. 그것은 통로 같았다. 집들 사이에서 짙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사촌 동생이 나를 뒤쫓아 와서 말했다.

“교회 십자가가 떨어졌어!”

그 말을 듣고 바라보니 교회 십자가는 없어지고 뭉툭한 플레이트 구조물이 제자리에 있을 뿐이었다.

엄마는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잠시 가게 쪽을 바라본 뒤, 아직 언덕에 있는 삼촌에게 소리를 질렀다.

“저기 주공 아파트에 불난 거 같아! 이 구멍들은 뭐야.”

사촌 동생은 나와 계속 가려고 했다. 그러자 엄마가 소리쳤다.

“같이 다녀야지.”

좁은 갈래 길 옆면에 집이 있는 곳까지 이어진 오르막길은 무척 길게 느껴졌다. 언제나 자동차를 타고 다녀서 느끼지 못했나 보다. 걸어가면서 보니, 마을의 모습은 눈에 띄게 변해 갔다. 자욱한 연기를 내뿜는 곳이 점점 더 많아졌다. 지붕에서 솟아오른 불길의 연속해서 옆으로 옮겨붙으며 점점 더 세져, 결국 언덕 위 위치한 도시 전체가 짙고 어두운 연기 구름 아래에 갇혀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그 구름은 학교, 혹은 더 먼 도시 쪽의 하늘에 걸려 있는 구름 덩어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우리는 많은 집에 벽이 없어진 것도 알게 되었다. 특히 아래쪽 벽이 허물어져, 지하실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사촌 동생과 내가 엄마, 삼촌을 기다리며 서 있을 때였다.

“저 소리 들려?”

사촌 동생이 물었다.

물론 들렸다. 숨죽인 비명이었다. 아파트 안쪽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처참한 소리였다. 그러나 난 모든 것이 마치 꿈같이 느껴졌다. 작고 따뜻한 마을의 원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빨리 악몽에서 깨어나야 할 것 같았다.

우리가 지나온 첫 번째 단지는 지붕과 벽 일부가 훼손되어 있었다. 승용차 바퀴들이 구멍이 나서, 몸체를 지탱할 수 없었다. 개 한 마리가 배가 불룩해서 걷지 못해 킁킁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어떡해, 어떡해.” 하며 울부짖는 아줌마의 목소리도 들렸다. 우리는 다시 아

스팔트를 밀어냈다. 타는 냄새는 갈수록 심해졌다. 이제는 거리의 눈이 모두 녹아버릴 지경으로 불이 번졌다. 나이 든 아줌마가 우리 쪽으로 뛰어오고 있었다. 작은 치와와를 안고 있었는데, 옷 단추를 여미는 것을 잊었는지 앞을 다 풀어 헤친 모습이였다.

“세상이 망한 거야! 종말이 온 거라고!”

아줌마는 쉬지 않고 소리를 질렀다. 아줌마가 다가오자, 엄마가 큰 소리로 말했다.

“저기 삼거리 마트 사장님 아니세요? 저쪽은 괜찮은가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아세요?”

분명히 눈을 뜨고 있었지만, 아줌마는 엄마를 알아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아줌마는 낮이 나간 모습으로 계속 뛰어갔다.

나는 고향 친구와 사촌 동생을 바라보며 아래쪽에 있는 초등학교를 가리켰다. 학교는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수많은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텅 비어 보였다. 혹은 누군가 있지만, 더 이상 소리 낼 수 없는 것 같이 보였다.

얼마 뒤 집을 찾아, 들어갔다. 그제야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똑똑히 보았다. 현관 바닥에 털이 부스스하고, 문틈은 삭아 벌어졌다. 현관 옆 화장실은 열려 있었고, 물은 나오지 않았다. 집 여기저기에 사각 화분, 흙먼지 같은 게 널브러져 있었고, 주방 옆 창문은 연기가 들어와 검게 물들었다. 창밖을 보니 어떤 남자가 자동차를 타고 필사적으로 골목을 빠져나오려고 했다. 자동차는 으르렁거리면서 도보와 도로를 넘나들더니, 카페 앞뜰 울타리에 박히고 말았다. 하지만 그 차에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모두 좀비 같았다. 모두 반쯤 낮이 나간 채로, 몸을 질질 끌었다. 삼거리 마트에 쓸만한 물건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보이는 사람들은 족족 그곳으로 가는 듯했다. 초등학교에서 나온 학생들이 보였다. 그들은 책가방을 부둥켜안고 가고 있었다. 여자애 머리에선 피가 흐르고, 두 팔은 축 늘어져 있었다. 방학 때마다 그녀가 우리 집 앞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간 것이 생각났다.

집에서 나와서 다시 차로 돌아가기로 했다. 마을의 초입을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학교 앞에는 어떤 여자가 피를 흥건하게 흘린 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누워 있었다. 사촌 동생은 그 앞으로 지나가기 싫은지 길 반대편으로 도망쳤다. 삼촌이 그녀에게 떨어지지 말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그녀는 두 눈을 꼭 감은 채 내 손을 붙잡고 그곳을 지나갔다. 나보다 더 강인하다고 생각했는데 말이다.

우리는 언덕을 다시 넘어 차로 돌아가려 했지만, 차가 나뭇가지들과 구급차에 막혀 있는 것을 생각해서,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마을 앞에 회전 차로와 넓은 도로를 가로지르면 신흥고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근처에 철물점이 있었다. 불타고 있는 양쪽 상가 건물 중 한 건물에서 누군가가 소방대를 찾으려 소리 지르고 있었다. 그러나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얼굴이 온통 피투성이인 아저씨가 우리를 앞서 지나갔다. 머리카락이 피로 엉겨 붙어있었다. 아저씨는 작은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그 아이도 온통 피투성이였다. 아저씨가 불타고 있는 다른 쪽 건물로 들어가는 게 보였다. 지나가면서 보니, 병원이었고, 그 안쪽에는 온통 다친 사람들과, 차를 타고 왔지만, 그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로 고요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드디어 우리는 철물점에 도착했다. 모두 경계 태세를 올렸다. 놀랍도록 고요했기 때문이다. 부서져 내린 타일들과 들린 바닥재들이 소름 끼쳤다. 창문의 유리란 유리는 모두 깨져 있었지만,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는 그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게 되었다. 삼촌

이 열려 있는 창문으로 몸을 숙이고 “저기요!” 하며 소리쳤다. 아무 기척이 없자, 삼촌은 철물점 밖을 빙 돌아가 기척을 살폈다. 아무 기척이 없자, 나도 삼촌 뒤를 따라갔다. 역시 아무 기척이 없었다.

그때였다. 철물점 다락에서 누군가 한숨을 쉬며 깨진 유리를 쓸어 담는 소리가 들렸다. 이 철물점에 다락이 있었는지 정말 몰랐다. 삼촌은 위쪽에 대고 손을 두드렸다.

다락은 열리지 않았다.

삼촌이 다시 엄마 곁으로 뛰어갔다. 고향 친구는 눈치 빠르게 뛰어가서 철물점에 있는 공구를 집어 들었다. 엄마는 고향 친구를 보더니 가방을 열어주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여러 개를 집어서 가방에 넣었다.

“밤이 늦기 전까지는 차로 돌아가야 해”

삼촌이 시계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하지만 시계가 멈춰 있었다. 삼촌은 당황하며 시계를 뚫어지게 들여다보았다.

“벌써 4시는 넘었을 거야. 이제 곧 깜깜해지겠지.”

삼촌이 말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죠?”

내가 엄마를 향해 중얼거렸다.

“난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삼촌이 대답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어.”

엄마가 말했다.

“빨리 나는 집으로 가고 싶어, 전주 시내 안쪽은 괜찮을 거야 사람들도 북적이겠지.”

삼촌은 엄마에게 크게 짜증을 냈다.

“지금, 이 상황을 보고도 그래? 안쪽은 더 그럴 거야. 폭탄이 떨어지고 전쟁이 난 거면, 구이로 숨어야지, 아빠 엄마가 괜찮은지 봐야 해.”

엄마가 소리쳤다.

삼촌은 벌써 철물점에서 빠져나와 사촌 동생을 데리고 차로 가고 있었다. 사촌 동생이 비명을 질러 댔다.

“우리는 구이로 가야겠다. 삼촌은 내버려두고.”

엄마가 삼촌 등 뒤에서 나에게 말했다.

“내가 한번 가볼게, 괜찮은지, 어떤지. 넌 여기 있어.”

그러곤 삼촌은 사라졌다. 엄마는 몇 걸음 뒤따라가다가 되돌아왔다. 삼촌은 엄마보다 훨씬 더 날렵했다. 항상 걸을 땀 엄마가 삼촌보다 빨랐는데 말이다.

“저도 따라가야 할까요?”

내가 물었지만, 엄마는 허락하지 않았다. 먼저 고향 친구와 나를 가게로 돌려보낸 뒤, 엄마는 철물점에 남아서, 삼촌이 소식을 전해줄길 기다렸다. 밤이 꼬박 지나도 엄마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너 집에 안 가고 싶어?”

내가 고향 친구에게 물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무슨 의도인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옷깃이 흘러 내렸다.

집에 들어와 보니 오히려 달라진 것은 없어 보였다. 며칠 지나니 지나다니는 사람조차도 찾을 수 없었다. 부엌 창문이 시커먼 것을 빼고는, 나와 친구가 모두 정리해서 말이다. 그리고 보니 선반 몇 개가 쓰러져 있었고, 참치 통조림이 굴러떨어져 있었다.

“먹을 것 좀 찾아봐.”

내가 무너진 간이 선반을 일으켜 세우며 친구에게 말했다. 선반은 어쩐지 다 삭아서 부서져 있었다. 부서진 선반을 보관할 데가 없었기에, 부엌 창문으로 다 버려버렸다.

그녀는 아무것도 먹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것저것 찾아 먹었다. 나는 선반에서 젤리 봉지를 찾아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젤리였지만, 요즘은 거의 먹지 못했다. 나는 밥도 먹지 않았지만, 젤리를 거의 다 먹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같이 설레는 밤에는 누구도 야단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다음에는 다른 것도 먹었다. 소시지를 얹어서 먹었다. 그녀가 웃음을 되찾았다. 나는 그 상태로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잠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엄마가 뛰어왔다. 그리고는 숨이 턱에 닿을 정도로 서둘러 우리를 집 밖으로 내보냈다. 불길이 거리에 번지고 있는 데다가 눈마저 내리고 있었다. 친구와 나는 가방을 하나씩 나눠 들고 큰 도로로 내려갔다. 삼촌이 돌아왔나 보다, 희망을 찾을 수 없었던 것 같다.

삼촌은 회전 차로에 차를 세워둔 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삼촌은 뒷좌석의 가루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엄마도 트렁크의 짐들을 내던지고 있었다. 그 속에 있는 예비 타이어와 워셔액, 상자 더미들, 엄마의 자기계발서들을 던져서 밖이 수북했다. 우리는 빈 트렁크에 짐을 몰아넣고, 빠르게 달렸다. 눈이 다시 우리를 막기 전에 달려야 했다. 정말이지 미친 듯이 달리고 또 달렸다.

우리 머리 위에는 다시금 흰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땅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사방에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다. 엄마의 한숨 소리인지, 무언가가 사방팔방으로 지나다니는 소리인지 모를 소리였다.

무엇인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내 옆에는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고,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지나오면서 보았던 불타는 건물들이 이제는 잿아들었다. 연기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모든 것은 고요한 퇴근 시간처럼 어색했다. 짐들은 까맣게 타서 내려앉았고, 이상하게 부서졌다. 이따금 ‘쿵’ 하는 소리가 울렸다. 난방용 LPG가 폭발하는 소리가 했다. 짙은 연기가 나다가도 멈추기를 반복했다. 나는 차 속에서 따뜻한 숨을 몰아쉬었다.

우리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었다. 원래 못살던 형편에 잃을 것도 없었을뿐더러, 정체 모를 상처를 입지 않았기 때문이다. 삼촌은 무엇인가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날 밤 이후 눈에 띄게 말수가 줄었다. 엄마도 그러했다. 차는 양옆이 약간 까였을 뿐이지, 바뀌는 멀쩡했다. 기름은 약간 부족했지만, 고향으로 내려갈 만큼은 있었다. 구이만큼은 멀쩡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가면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이 추운 겨울을 지날 수 있을 것 같았다.

점심 무렵이 되면서 땅의 울림은 잿아들었지만, 곳곳에 싱크홀이 발견되었다. 눈은 오전 내내 계속되다가 진정되었다.

오후 늦게 우리는 가방에서 과자를 꺼내 먹었다. 이번에는 많이 먹었다. 그날 엄마는 철물점에 혼자 남아있었는데, 겁이 없었던 것인지, 다락을 열고 상태를 보았던 것 같다. 그곳

에서 주인장의 음식을 다 뺏어 먹은 것 같았다. 그 집 사람은 저항할 새 없었던 것 같다. 죽었겠지. 우리가 지나온 길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눈은 파여 있었고, 어떤 자국도 없었다. 누구도 이 길을 지나지 않았다. 나는 고향에 가는 길이 완벽히 기억나지 않았다. 그저 삼촌이 모는 차를 믿을 뿐이었다. 고향 친구는 집을 알려주지 않았고, 우리는 의문스러웠지만, 친구를 우리 집으로 데려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지나올 때 본 삼거리가 기억에 남는다. 모두 삭아 있었다. 구멍이 뚫려 있었다. 바람에 나무들이 나부꼈다.

구이집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한테 저녁 준비를 하자고 말했다. 저녁을 먹은 뒤 삼촌은 우리를 침실로 보냈다. 나는 놀이방에서, 사촌 동생은 할머니와 엄마한테서, 그리고 고향 친구는 내 품에서 잠에 들었다. 나는 그녀와 그렇게 해야만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는 집을 잊어버리고 조금은 편한 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삼촌은 그렇지 않은 듯했고, 또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 삼촌은 캄캄한 부엌에서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삼촌은 밝은 아침이 돼서야 입을 열었다. 나는 비몽사몽 일어났고, 친구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엄마는 우리를 다시 침실로 돌려보냈다.

침실에서 삼촌의 이야기를 엿들은 우리는 깜짝 놀라 한발 작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더러운 얼굴을 한 사람이 사촌 목에 매달려 큰 소리로 울고 있었다. 사촌 동생은 잣데미속을 뒹굴다 온 것처럼 보였다. 삼촌은 누가 또 오는 소리를 듣고 사촌 동생에게 고개를 돌리더니 고함을 질렀다.

“저리 가! 어서 차로 가, 가라고! 내 말 안 들리니?”

차에 타니 사촌 동생은 황당한 심정으로 조용히 차 거울을 보았다. 그녀의 까만 얼굴이 온전히 비쳐 보일 정도로 달이 밝았다.

“으익!”

그녀는 온 얼굴을 감싸는 벌레들을 손으로 떼어내며, 황급히 문을 열고 나왔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는 침실 문을 닫고 속삭이며 물었다.

친구는 몸을 일으켜 문에다 귀를 바싹댔다. 나도 그녀를 따라 했다.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다. 엄마는 아무 말이 없었다. 삼촌이 먼저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았다.

“전쟁이 난게 아닌 거 같아.”

삼촌이 다시 말을 이었다. 엄마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삼촌이 흥분해서 말하기 시작했다.

“버스 정류장 안쪽에 남아있는 시체들을 가까이서 봤는데, 피부에 구멍이 뚫린 사람, 팔다리 가루가 되어 사라진 사람들이 가득한 거야. 더 깊숙한 쪽은 눈이 없었어. 그 사람들은 꿈틀거리면서 무엇인가 뚫어내려고 애썼어. 개네 피부도 꿈틀거렸고, 몇몇은 속이 텅 비어서, 죽은 것 같아. 그러다가 일부가 작은 불씨에 뛰어들더라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은 땅에 엎드려 몸을 비비고 있었어. 사람들은 대부분 발가벗고 있었고, 그나마 몸에 걸친 옷가지들은 점점 잘게 찢겨서 없어졌어.”

삼촌이 다시 말을 멈추었다. 엄마 목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너무 작아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어린애들도 그랬어!”

삼촌이 소리쳤다. 다시 엄마 목소리가 들렸다. 아주 침착한 목소리였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긴 했는데.”

삼촌이 말했다.

“결국에는 다 죽었겠지. 그것들이 여기로 몰려들지 않을까? 내일이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고. 살갓이 파이고, 머리카락도 다 빠져버리는 거지. 이제 여기를 완전히 뒤덮어 버릴 거야. 내일은 애들을 문밖으로 내보내지 마. 철저히 방역해서 예방해야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조금 뒤, 삼촌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다.

“그분들은 돌아오시지 않을 거야.”

그 말은 듣고 나는 숨을 멈추었다.

“누가 안 돌아온다는 거야?”

나는 어둠 속에서 친구에게 소리 죽여 물었다.

“.....”

친구가 대답하지 않았다.

“서울이든 어디든 내일 아침 곧바로 도망가는 게 낫지 않을까?”

엄마가 말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들은 거 맞아? 가다가 죽을 거야. 너 애들 데리고 갈 수 있겠어?”

삼촌이 물었다.

“하지만 여기 있는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엄마가 펄쩍 뛰었다.

“이미 너무 늦은 거일지도 몰라. 오빠도 이미 몸속에 있는 거 아니야?”

엄마가 말했다.

“못하는 말이 없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 있겠냐? 운이 좋기를 바라는 수밖에, 눈이 많이 와서 곧 다 죽겠지. 일반적으로론.”

삼촌이 말했다.

“그래, 그렇겠지.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

엄마의 목소리가 커졌다.

마침내 부엌이 조용해졌다. 거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 날 아침에 보니, 거실에 있는 카펫이 온통 검은 가루로 뒤덮였다. 삼촌이 거기서 잔 모양새였다.

나와 친구는 벌써 한참 전에 잠에서 깨어 침대에서 그냥 꿈지락거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어. 폭발이 아니라면 도대체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고 있는 건데? 왜 가렵다는 거야?”

“병에 걸린 거 아닐까? 전염병이 도는 거지.”

친구가 말했다.

“여기까지 퍼졌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도 죽겠지.”

친구가 말끝을 흐리며 대답했다.

“나는 죽는 거 상상해 본 적도 없어.”

“.....”

나는 잠깐 땅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걸어오는 사람들을 생각했다.

병에 걸렸으면서 우리에게 다 퍼뜨리려고 다가오는 모습을. 내 친구들, 선생님들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았다. 나는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고, 바짝 말라 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갑자기 웃음이 나오려 했다. 웃음을 삼키려고 애를 썼더니, 목이 메어 왔다.

“자?”

내가 속삭였다.

“어떻게 잘 수 있겠냐?”

친구가 대답했다.

사촌 동생만이 평화롭게 새근거리며 자고 있었다. 부엌에선 낡은 벽시계가 여느 때처럼 변함없이 똑딱거리고 있었다.

“학교는 전부 없어졌을까?”

내가 물었다.

그러나 친구는 더 이상 대답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검은 노래기가 화장실에 나왔다. 어떤 살기도 찾아볼 수 없었지만, 이내 몇 마리가 더 튀어나와 한쪽 줄눈을 검게 물들였다. 삼촌은 점심때가 되도록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엄마는 우리에게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삼촌의 신음이 들리자. 엄마는 삼촌에게로 뛰어갔다. 삼촌은 마치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몸부림치며 소리를 질렀다. 엄마는 삼촌을 진정시키기 위해 한참이나 애를 썼다. 사촌 동생은 두 귀를 막았다. 하지만 나는 삼촌이 누워 있는 방으로 들어가 큰 소리로 물었다.

“삼촌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자 엄마가 나를 방 밖으로 끌어냈다. 사촌 동생이 봐주길 기대했지만, 그녀는 눈길도 주지 않고 나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동생은 나뿐만 아니라 모두를 피해 다녔다. 할머니는 삼촌을 간호하려 했지만, 엄마가 막아섰다.

한낮이 되어도 물러가지 않는 칙칙한 기운, 하얀 눈이 만들어낸 일률적인 색칠, 온 마을에 진동하는 고요함, 녹녹해진 솜이불, 그리고 마당에서 잡초를 뽑는 할아버지의 한숨 소리, 이 모든 것이 사촌 동생에게겐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고, 전기도 들어 오지 않았다. 사촌 동생은 당황했다. 그런 모습을 본 적 없었다. 집으로 가고 싶어 했다. 여기만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집은 경기도였다. 거기에 갈려면 한참을 달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 리가 없었다. 그녀는 영영 울면서 녹녹한 솜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워서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않았다. 친구만이 사촌 동생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경찰들은, 군대는, 정부는? 아무도 이런 사태가 간혹 일어나기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생각하기엔, 정부가 이런 일을 해결했던 것 같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이상하다, 이상하리만치 조용하고, 아무런 소식도 들을 수 없다. 가끔 이웃 사람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긴 했다.

“도대체 통신은 왜 끊긴 거야.”

“내가 봤을 땐, 중국, 러시아가 끊은 거야, 전쟁 나서.”

며칠이 지난 뒤, 나는 삼촌이 엄마에게 하는 말소리를 들었다.

“내가 한순간에 재로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엔 내가 밟아 없앤 많은 생명이 생각났다. 어떻게 사람이 재로 변할 수 있지? 나는 그것에 관해 골똘히 생각해 보았다. 심지어 꿈도 꾸었다. 어느 순간 핵폭탄이 떨어졌고, 난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산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닌 것처럼,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모든 일들이, 다 지워질 것만 같았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사람들이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온통 피투성이인 그들은 옷인지 살인지도 모를 찢어진 조각들을 너털너털 달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사촌 동생을 부르려다가 그만두었다. 그녀는 피만 보면 질색했기 때문이다. 속이 안 좋았다.

지나가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창문 바로 앞에서 “물!”하며 신음을 내자, 나는 깜짝 놀라 부엌으로 도망쳤다. 하마터면 기절하는 줄 알았다. 잠시 후, 엄마가 길가로 난 창문의 커튼을 쳤다.

눈이 많이 내리던 그날 이후, 우리는 반쯤 멎은 상태로 시간을 보냈다.

“조금만 참아. 우리는 가장 끔찍한 일을 겪은 거야. 곧 구호 단체들이 도착할 거야. 일단 눈이 모두 녹고, 도로가 정리돼야 들어올 수 있거든, 그때까지 힘든 시간을 잘 견뎌 내야 해. 곧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거야.”

삼촌이 우리를 다독거리며 말했다.

삼촌은 곧 외부와 연결되어 생필품이 공급되고, 집 잃은 사람들을 위한 숙소가 세워지고, 부상자들을 보살필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때가 우리 모두 어느 정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때였고, 그런 날들도 곧 지나가 버릴 것이라는 걸 말이다.

아니, 어쩌면 삼촌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한 것 같기도 하다. 왜냐하면 사건 이후 일주일 되던 날, 생필품을 사러 마을 입구 쪽 마트에 갔었는데, 그때부터 외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삼촌은 그 외부인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를 리가 없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한참 뒤에나 알게 되었다.

이제 우리에게 3~4주 정도는 충분히 지낼 옷가지가 있었다. 또 당분간 음식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냉장고와 창고에 먹을거리들을 넉넉히 채워 놓은 덕분이었다. 단지 전기가 끊겨 냉장고가 작동되지 않는 게 문제였다.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곤상하거나 곰팡이가 필 만한 것부터 먼저 먹었다.

하지만 한 달째 되던 날 벌써 물이 동났고, 다음 날엔 쌀이 떨어졌다. 나는 마트로 가서 쌀이 있는지 알아보고 오겠다고 했지만, 엄마는 한사코 집 밖으로 내보내 주지 않았다. 내가 나갈 수 있는 곳은 집 뒤뜰뿐이었다. 그곳에 자라난 내 키 정도의 풀들은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잿빛 하늘 탓에 징그럽게 솟아오른 털처럼 보였다. 이 어두침침한 어스름은 어디서 온 걸까?

삼촌은 먹을 것을 구하러 편의점이고 마트고 돌아다녀 보았지만,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나는 알 수 없었다. 원래 이 마을이 이토록 고요했던 건지. 몇 년 전부

터 이 마을에 살던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집 안에 숨어버린 건지, 마을을 떠난 건지 알 수 없었다. 내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고요하지 않았는데, 집 앞의 펜션에도 사람은 없었다. 그저 시내에서 온 병자들이 주인 없는 집에 피난처를 마련하고, 곧 조용해질 뿐이었다. 그 사람들은 주린 배를 움켜쥐고 불편한 몸으로 거리를 헤매고 다녔다. 갈기갈기 찢어지고 불에 탄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구호품을 건네 줄 사람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구조대는 어디에 있는 거야? 여기 근처에는 소방서, 경찰서는 없어? 병원은?”

“왜 우리를 도와 줄 군인들은 투입되지 않는 거야? 어째서 헬리콥터 한 대도 얼씬거리지 않는 거냐고? 아무리 시골이라고 해도 말이야!”

이런 의문의 목소리만이 점점 커지어 갔다.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숨 막히는 생활이 이어졌다. 자고 일어나면 삼촌이 새로운 추측을 들려줬지만, 그러나 정확히 아는 바는 하나도 없었다. 신문도 없었고,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스마트폰도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건전지를 넣어 사용하는 라디오도 더 이상 아무 소리도 잡아내지 못했다. 방송이 나오지 않다니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전파를 방해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전쟁이 나서 말이야. 하루아침에 인공위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데이터도 안되는 게 이상하네.”

엄마가 말했다.

“전쟁이 진짜 났다면 이토록 조용할 수 있나요?”

내가 말했다.

“주파수를 잘 맞춰봐요. 라디오 쥬 봐요.”

사촌 동생이 말했다.

시내 외곽에서 고향으로 피난해 오는 난민들의 수가 매일매일 늘어났다. 아마도 이곳이 평화롭고 식량이 풍족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진 모양이다. 이곳에 가정의학과가 하나 있다는 것도 좋은 소문에 일조했다.

“벌써 약이 다 떨어져서 문을 닫아 버렸는데,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

삼촌이 가정의학과 건물 앞에 갔다 와서 말했다.

도망쳐 온 지, 한 달 일주일이 되던 날, 어떤 외부인이 깜짝 놀랄 만한 소문을 전해주었다. 북쪽 외곽에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옆 도시도 완전히 풍비박산 났다는 것이었다.

“나라 전체가 이 모양인가? 구조대가 오는 거 맞아?”

엄마가 말했다.

“그래도 언젠가는 내 집으로 돌아가야지!”

삼촌이 깜짝 놀라 소리쳤다.

그날부터 엄마는 몇 시간이고 한자리에 앉아 시선을 앞에다 고정한 채 골똘히 생각에 잠길 때가 많았다. 그러느라고 내가 배가 고프다고 말하는 것도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사촌 동생은 하루 종일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쓰고 침대에 누워 있다가, 삼촌이 큰 소리로부터만 일어났다. 예전에 삼촌은 사촌 동생을 거의 야단친 적이 없었다.

다음 날, 큰 소리가 들려 창밖을 보니, 우리 옆집의 2층 지붕 뼈대 일부분이 무너졌다. 벽에서 커다란 시멘트 덩어리들이 보드로 떨어져 내렸다.

이제 분초를 다투는 급한 일들은 모두 삼촌 몫이 되었다. 삼촌은 자꾸 나오는 벌레들을 방제하느라 애를 먹었다. 겨울인데도 화장실에 노래기가 잔뜩 나왔기 때문이다. 삼촌은 할

아버지의 작업장에서 찾아낸 투명한 비닐 포장지를 크기에 맞게 잘라 있었는지 모를 구멍에 대고 못을 박았다. 나는 옆에서 삼촌을 도왔다. 눈이 다시 한번 오자 옆집 지붕이 완전히 무너졌다. 삼촌과 나는 옆집에 잠시 들러 상황이 보기로 했다. 운 좋게도 할아버지가 작업장에 온갖 연장들을 잘 갖추어 놓은 덕분에,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밤마다 작업장 문단속을 신경 써야 할 일이 생겼다. 누군가 작업장에서 바닥에 놓은 못 뭉치를 통째로 훔쳐 간 것이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없는 못을 말이다.

삼촌은 매일 약수터에 가서 물을 떠 왔다.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할아버지 작업장 위에 옛 절터가 있었는데, 그곳에 약수터가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때까지도 집보다 별장에서 생활하셨다. 할머니도 집이 너무 복잡거린다면 별장에서 생활하셨다. 약수터 물은 가끔 텅텅한 느낌이 나서, 꺼림직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물은 근처 산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었고, 의심할 필요 없었다. 그렇지만, 이전의 폭발과 먼지, 검은 가루들을 담고 있을 수 있었기에, 엄마는 조심해서 먹어야 한다고 했다. 엄마는 삼촌에게 다른 식수원을 찾아보라고 했다. 삼촌이 별장 근처의 집들을 두드리며, 정보를 얻으려 했지만, 그곳은 오래전부터 텅 비어 있었다. 마치 마을 전체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곳이었던 것 같기도 했다. 하루는 집마다 아무런 반응이 없자, 삼촌이 문이 열린 집에 몰래 들어가는 일이 있었다. 방문을 차례차례 열어봐도 아무도 없자, 나오려고 했지만, 한 방에서 썩은내가 진동했다. 그곳에는 부패한 어떤 할아버지의 시체가 있었다. 바퀴벌레, 지네, 쥐들이 가득했다. 삼촌은 식겁해서 얼른 빠져나왔고, 이후엔 반응 없는 집에 들어가는 일은 없었다.

“이 지역이 외부인들이 옮기는 병에 의해 오염됐을 수도 있어. 그 사람들의 몸을 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잖아. 물 뿐만 아니라 공기도 들이마시지 말아야 하고, 땅에 발도 대지 말아야 해.”

“하지만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오염을 완전히 피하려면 여기에 있지 말아야지. 이곳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만지고, 먹고, 마실 수 있겠지. 하지만 벌써 오래전에 모든 것이 오염되었다면 우리는 이미 때를 놓친 거야.”

삼촌이 말했다.

“꼭 그렇게 비관적으로 말해야 해?”

엄마가 흥분해서 물었다. 그 와중에도 엄마는 그릇을 소독할 물을 끓이고 있었다.

“삶는 걸로 예방할 수 있었으면, 저 많은 사람들은 왜 계속 우리 쪽으로 오는 건데? 한 달이나 지났는데도, 끊이지 않잖아.”

삼촌이 말했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엄마가 소리쳤다.

“정말 사람 맥 빠지게. 우리가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어 보이고 말아야.”

외부 화장실 옆에는 오래된 화덕이 있었다. 할머니가 폐품 수거용 쓰레기로 버려야 할지, 아니면 돈을 받고 팔아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놓아둔 것이었다. 우리는 가스가 다 떨어지자, 그걸 대용으로 사용했다. 엄마는 다시 불 피우는 연습을 해야 했다. 우리는 다 무너져 내린 옆 건물 지붕을 몰래 떼서 부엌에서 장작으로 썼다.

우리는 음식을 아껴 먹어야 했다. 더 이상 먹을 만한 음식들이 없었다. 편의점 음식들은

모두 물러 터졌고, 새로 음식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외부인들은 음식을 모두 가져가서 먹었지만, 곧 쓰러졌고, 어딘가에 처박혔는지 시체를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는 물도 아껴 써야 했다. 샤워 같은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저녁이면 삼촌은 대야에 물을 담아 절반은 나에게 부어 주고, 나머지 절반으로 몸을 씻었다. 엄마와 사촌 동생은 큰 대야에 물을 담아 놓고 씻었는데, 두 사람이 씻고 나면, 그다음은 친구 차례였다. 친구는 몇 번 씻은 뒤, 그 물로 부엌을 청소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냄새나는 생활은 버틸 수 없었을 것이다.

서서히 흐릿한 기운이 걷히고, 다시 해가 났다.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졌고, 언제 다시 추워질지 모르지만, 몸에 활력이 돌는 듯했다. 우리는 즐거웠던 방학 생활을 떠올렸다. 매일 같이 먹던 굴은 없었다. 나는 별장 너머에 있는 이웃 할아버지 비닐하우스가 떠 올랐다.

“정말, 거기 가려고? 성한 열매가 있겠냐?”

삼촌이 물었다.

“더구나 오염됐을 수도 있는데, 저 죽어가는 외부인들을 보고도 그러니?”

삼촌이 덧붙여 말했다. 그것 삼촌 말이 맞았다.

변기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삼촌은 고요해진 옆집을 보고는 그 본채 옆에 붙은 작은 창고에 양동이 하나를 갖다 놓았다. 용변으로 채워진 양동이는 그 뒤편 퇴비 더미에다 비웠다. 그곳에는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무더기로 쌓여있었다. 쓰레기 더미에서 곧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 고약한 냄새 때문에 할머니가 가끔 오셔서 화를 냈지만, 어쩔 도리가 없지 않은가?

삼촌이 당장 내 일손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면, 나는 몰래 문을 열고 나와 마을을 돌아보았다. 외부인들이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반쯤 헐벗은, 비참하고 절망적인 모습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한번은 밖에 나가려다 엄마에게 들키고 말았다. 혼쭐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엄마는 야단치지 않았다. 그 대신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울기 시작했다. 그러자 나도 눈물이 났다. 엄마는 내 어깨를 팔로 감싸더니, 문에서 멀찌감치 떼어 놓았다.

“저 사람들 눈에 띄면, 안돼. 식량이 얼마 남지 않았어.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잘 간수해야 해.”

엄마가 말했다.

그 말을 듣자, 나는 울음을 그쳤다.

“하지만 만약 내가 저 사람들처럼 구걸하러 다니면요? 아니, 그게 바로 엄마라면요?”

내가 물었다.

“나도 이럴 수밖에 없는 내가 밉다. 하지만 우리를 희생해 가면서 다른 사람을 구해 줄 순 없잖아?”

엄마가 우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 달 일주일 삼일이 되자, 나는 집 근처에만 머무르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외부인들이 어디 가는 지 알고 싶었다. 항상 가던 별장 방향이 아니라, 우리 집 뒤뜰을 지나면 나오는 다른 마을에 가고 싶었다. 나는 애걸복걸하며 졸라 댔다. 엄마는 허락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결국 삼촌은 엄마에게 말했다.

“나가게 해 줘. 재도 약하지 않아. 지금까지 세 명 중에 가장 잘 이겨냈어. 애들도 이젠 서서히 상황에 익숙해져야지. 그리고 나도 어차피 계속해서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할 수는 없어. 열일곱, 여덟 살이야. 너나 나의 일을 많이 도울 수 있다고, 이를테면 먹을거리를 가져다줄 수도 있지. 그러니까 한 번 멀리 보내보게.”

삼촌은 내 손에 가방을 쥐여 주며 뒤뜰로 보냈다. 나는 가방을 메고 기다란 풀 옆쪽으로 뺑 돌러 갔다. 뒤돌아서서 마을을 돌아보았다. 마을은 놀랍도록 고요하고 이전과 같았다. 그러나 변한 것이 있었다. 아무도 없는 것, 놀랍도록 고요한 것, 소름 끼치도록 고요한 것이었다.

“여기로 오세요. 어허! 거기 누구야!”

조금 걸어서 언덕 뒤에 오니, 한 교회가 있었다. 그곳에서 안내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서 풀숲에 숨었다가, 눈앞에 보이는 감자 몇 개만 훔쳐서 돌아왔다. 여기는 무엇인지, 외부인들을 받아주며 돌보는 것 같았다.

나는 감자를 담아 무거워진 가방을 메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고는 다시 잼싸게 도망쳐 나왔다. 또 이 고요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교회까지 계속 걸어갔다. 교회 정문 아치로 들여다본 광경은 정말 믿고 싶지 않았다. 부상자들이 맨바닥에 길게 줄을 지어 누워 있었는데, 대부분은 반쯤 벌거벗었거나 완전히 벌거숭이였다. 그들 옆에는 보호자인 듯한 사람들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면서도 형제자매와 부모를 찾으려고 이리저리 울며 돌아다녔다. 부모들도 다친 아이들을 찾아다녔다.

정문을 지나는 동안, 나는 보고 또 보았다. 참혹하게 짝이 없는데도 눈길을 땔 수 없었다. 얼굴에 구멍이 뚫린 여자가 누워 있었다. 잇몸이 다 보였고, 머리카락도 몇 군데 없었다. 한쪽 귀는 잘려 나가 귀 자리에 피딱지만 남아있었다. 그걸 보고 나는 토할 것 같았다. 여자 옆에는 나보다 세 네 살 어려 보이는 여자아이가 누워 있었다. 여자아이는 젖가슴이 약간 솟아 있었다. 하지만 옷이라곤 청바지 하나만 걸쳤을 뿐, 다른 데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다. 바지 역시 여러 군데 구멍이 있었고, 타서 그슬린 부분이 있었다. 두 다리는 굵힌 상처로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바지가 맨살에 들러붙어 있었다. 한 군데는 뼈가 다 보일 정도였다. 내가 뻘히 쳐다보자, 여자아이는 얼굴이 빨개지며 두 손으로 가슴을 가렸다.

나는 눈길을 돌려 줄지어 누워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남자, 여자, 아이들이 뒤섞여 있었다. 여기저기 다친 사람들, 몸의 일부가 잘려 나간 사람들, 화상을 입은 사람들이 나란히 누워 있었다. 사람들은 대부분 살갓이 벗겨져 너덜거렸다. 자기가 토해 놓은 토사물 위에 누워 있는 사람도 있었고, 자기 몸에서 흘러나온 피에 잠겨 있는 사람도 있었다. 똥오줌 냄새도 물씬 풍겼다. 목이 타서 물을 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애걸하는 소리와 신음, 탄식 소리가 마치 물결치듯 한 번은 크게, 한 번은 작게, 그 다음엔 다시 부풀어 올라 거친 울음이 되어 교회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저기요, 물 좀 갖다줄래요?”

굵힌 상처로 만신창이가 된 다리를 한 여자아이가 신음하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으로 달려갔다. 교회에서 집까지는 조금 멀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주전자에다 양동이에 남은 물을 마저 부었다.

“물 다시 떠 와야 해.”

엄마가 말했다.

“알았어요. 금방 떠 올게요.”

나는 얼른 대답하고 엄마가 나가는 걸 말릴까 봐 쥘싸게 주전자를 들고 뛰어나왔다.

여자아이는 몸을 일으키지 못했다. 나는 여자아이의 입에 주전자를 대 주었다. 아이는 게걸스럽게 물을 마셨다. 그러자 아이 주변에 있던 다른 부상자들이 물을 달라고 소리쳤다. 그들은 이성을 잃은 채, 내 손에서 주전자를 뺏아채 서로 먼저 물을 먹겠다고 밀쳐 댔다. 나는 그들이 더 이상 사람처럼 여겨지지 않았다. 그리고 사실 그들 모습 역시 거의 사람이라고 보기 힘든 몰골이었다. 나는 주전자가 다 빌 때까지 물을 나누어 주었다. 주전자 가장자리에 침, 피, 그리고 고름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다. 구역질이 났다. 그런데 귀가 잘려 나간 아줌마는 물을 달라고 구걸하지 않았다. 나는 이상해서 아줌마에게 몸을 숙이고 물었다.

“아줌마, 물 좀 드실래요?”

하지만 아줌마는 대답이 없었다. 눈을 크게 뜨고 누워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아줌마한테는 이제 물이 필요 없어요. 죽었으니까.”

여자아이가 말했다.

“여기 누가 죽었어요!”

나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곧 사람들이 달려올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고향에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여기도 있단다. 애야. 여긴 죽은 사람들로 가득해. 그 사람은 다음 손수레가 시체들을 거두어 갈 때까지 기다려야 해. 적어도 그런 건 질서가 잘 잡혀 있지. 익숙해져라.”

죽은 아줌마보다 두 줄 뒤에 누워 있던 할아버지가 말해 주었다.

나는 좀 더 자세히 둘러보았다. 그러자 할아버지 말이 옳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누워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온몸의 뼈가 뒤틀린 사람들도 있었다. 한 아줌마가 비명을 지르며 꼬마 아이를 흔들고 있었는데, 아이는 물에 젖은 형겅처럼 아줌마 팔에 매달려 있었다. 한쪽 다리가 잘려 나간 남자는 푸르스름하고 창백한 얼굴로 두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동강난 다리에는 겨우 응급조치로 붕대가 감겨 있었는데, 붕대는 완전히 피로 물들어 있었다. 얼마 후, 죽은 사람들을 거두어 가는 사람들이 그 남자를 들것에 실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울던 아줌마한테서 억지로 아이를 떼어내어, 젊은 남자의 가슴 위에 비스듬히 엮었다. 남자의 잘려 나간 다리에서 붕대가 풀려 떨어지는 걸 보았다.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부화를 준비 중인 수 많은 알이 보였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기절하고 말았다.

눈을 떠 보니, 여자아이 옆에 누워 있었다. 햇살이 얼굴로 쏟아졌다. 한 아줌마가 양동이를 들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을 나눠 주고 있었다. 아줌마는 자기 힘으로 컵을 들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직접 입에다 컵을 대 주었다.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물이 새어 나왔다.

나는 목이 마르긴 했지만, 아줌마가 다가오기 전에 벌떡 일어나 달려 나왔다.

정문을 지나갈 때였다. 방금 시체를 거두어 간 사람들이 바퀴가 두 개 달린 손수레를 밀면서 가고 있었다. 손수레는 덮개로 덮여 있었다. 나는 그 뒤를 따라갔다.

“저리 가라, 이놈아. 이걸 애들이 볼 게 못 돼.”

한 사람이 뒤돌아보며 말했다.

나는 그 사람들이 앞서가도록 잠깐 멈춰 서 있었다. 그런 다음 다시 그들을 뒤따라갔다.

그들은 깊은 숲속, 나무가 이상하게 없는 공터로 손수레를 끌고 갔다. 거기에는 땅을 파내어 만든 커다란 구덩이가 하나 있었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그네를 태우듯 흔들며 구덩이 속에 던져 넣었다. 나는 죽은 아이의 엄마가 생각났다. 그때 그 사람들은 휘발유를 붓더니, 성냥으로 불을 붙였다. 벌레들이 일제히 몸을 뚫고 나와 발버둥 쳤지만, 타 죽을 뿐이었다. 아직은 남아있었는지 모를, 죽은 자들의 영혼과 함께, 소멸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주전자가 없어진 걸 알았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었다. 교회에도, 공터에도 없었다. 나는 벌레 구덩이로 빠졌다고 생각했다.

4.

그날부터 나는 집에 있는 시간보다 교회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그래서 삼촌은 자주 화를 냈다. 삼촌이 일할 때 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는 곧잘 “지원이도 있잖아요. 왜 개는 물을 안 떠 오는 거예요? 교회에는 할 일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라며 반항하곤 했다.

처음에 나는 여자아이만 돌봐 주려고 했다. 하지만 곧 다른 환자들도 나를 부르며 도와달라고 했다. 매일 새로운 화자들이 교회로 왔다. 환자의 가족들은 마지막 힘을 다해 환자들을 끌고 교회로 몰려들었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그들을 도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은 여자아이를 돕는 데 보냈다. 나는 먹을 것을 몰래 가져와 아이에게 주었다. 하루에 세 번씩 나누어 주는 죽이 날이 갈수록 묽어졌기 때문이다. 친구의 옷을 갖다주었을 때 아이는 정말 기뻐했다.

여자아이가 자기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이름은 송채은이었고, 가족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였다. 그녀는 나의 고향과 시내의 중간쯤에 살았는데, 언니는 사라졌다고 했다. 그 언니를 찾으러 시내로 나갔지만, 그곳에서 아빠는 폭발에 목숨을 잃었고, 엄마는 고향에 당했다고 했다. 엄마를 이리저리 찾아보았지만, 겨우 안경만 찾아냈을 뿐이었다. 안경은 찌그러진 곳 없이 말짱했다. 주변엔 움직이는 것이 없었고, 그렇게 도시의 모든 것이 죽어서 움직이지 않았다.

다리에 입은 상처와 가슴의 타박상 때문에 그녀는 걸을 수 없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부축을 받아야 했다. 할머니는 그녀와 함께 더 먼 쪽에 있는 마음마일에 가려 했다. 그곳은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을로 이어지는 다리를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언덕을 빙 돌아서 천천히 이동해 왔다. 그곳에는 작은 냇가가 있어 갈증을 달랠 수 있었다. 그녀가 배가 고프다고 투덜대자, 할머니는 몹시 기뻐했다. 배고픔이 살고자 하는 표시라고 생각한 것이다.

두 사람은 내가 가려고 했던 비닐하우스에서 과일을 몇 개 따다. 물렁거렸고, 안에 무엇인가 들은 듯했다. 여름에 방치한 것처럼 말이다.

교회 쪽에 다 왔을 때였다. 한 시골 아줌마가 두 사람에게 다 눌러 붙은 야채수프를 선물했다.

“어제 만든 거예요. 난 한 입도 안 먹었어요. 우리 딸이 만들었거든요. 개는 시내로 나갔어요.”

아줌마가 말했다.

그 후 두 사람은 언덕 아래의 마을에 도착했고, 물어 물어 교회까지 찾아왔다.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는 부상자 무리에 떠밀려, 두 사람은 교회 건물 안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마당에 몸을 눕힐 수밖에 없었다. 그녀와 그녀의 할머니는 밤마다 추위에 떨

었다. 아침이면 이슬 때문에 사방이 축축하여, 할머니는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할머니는 몸에 열이 있었고, 노란 무엇가를 계속 토하면서, 계속 물을 찾았다. 어두운 반점들이 온몸을 뒤덮더니,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그녀에게 말했다.

“이겨 내라,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얼마 후 그 사람들이 와서 할머니를 짐짝처럼 싣고 갔다.

나는 엄마, 삼촌과 이야기해 보았다. 그녀를 우리 집에 데리고 오자고 졸랐지만, 엄마는 반대했다. 엄마는 이 비참한 상황에 관한 것이라면 어떤 것도 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를 데리고 왔어도, 우리 집에 오래 둘 필요는 없었다. 그녀는 점점 더 허약해졌다. 내가 먹여 주어도 더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속만 메스꺼워 했다. 설사를 하더니, 마지막엔 피까지 토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졌고, 다리에 난 상처들은 징그럽게 변했다. 죽기 이틀 전부터, 그녀는 교회 지하실로 옮겨져 매트리스에 누울 수 있었다. 그러고 난 후, 그녀도 실려 나갔다. 나는 그녀의 뒤를 따라갔다. 혼자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다.

“뭐하나 이놈아! 이 앤 죽었어!”

그녀를 싣고 가던 사람이 말했다.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에 그렇게 빨리 익숙해질 수 없었다.

전주와 완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도시 전부가 파괴되었고, 수백만 명이 정체 모를 상황에 죽어가고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그러나 삼촌은 단지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엔 절대 믿을 수 없어.”라고 말할 뿐이었다.

엄마는 그 소문에 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엄마가 그 소문을 누구보다도 믿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눈치챘다. 그러나 엄마는 내심 소문들이 옳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가 죽은 뒤에도 나는 교회에서 사람들을 도왔다. 밀어닥치던 부상자들의 물결이 약간 주춤했다. 24시간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일하던 의사 선생님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 사이 구덩이를 만드느라 숲은 마구 파헤쳐졌다. 어떤 사람은 구덩이가 열두 개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열다섯 개라고 주장했다. 구덩이 속에는 재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쌓여있었다.

“난 묘지에 묻히고 싶어! 그게 죽는 사람한테 할 최소한의 도리 아니야?”

교회 맨 끝에서 늙은 부인이 새된 소리로 외쳤다. 그러고는 죽은 사람들을 거두어 가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었다. 나는 부인이 그들에게 두툼한 두께의 봉투를 건네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보아하니 부인은 명품 가죽 가방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이 온몸에 퍼져 있는 고름들과 빗에 쏠려 나오는 한 움큼의 머리카락 같은 기생충들에 의한 질병을 막아 주지는 못했다.

그 사람들은 어깨만 으쓱해 보일 뿐, 아무도 돈을 받지 않았다.

“안쪽 숲속이 교회에 가까워요. 여기에 묻을 데가 어딴다고 그래요? 언제 그걸 묻고 말이

에요. 이해하세요. 그건 안됩니다. 우리도 부탁 들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죠. 돌아가신 뒤에 며칠 동안 어딘가에 묻히지도 못하고 여기에서 벌레집이 되고 싶으세요? 양심이 있어야지.”

한 사람이 말했다.

“하지만 난 그렇게 타 죽고 싶진 않아요. 비인간적으로.”

부인이 큰 소리로 하소연했다.

그들은 짜증을 내며 서둘러 일했다.

“얼른 묘지 터를 만들어야 하겠네. 재라도 넣어드리게.”

그들은 불통거렸다.

솔직히 부인이 불쌍했지만, 정말 이기적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 몸속에 있는 많은 벌레가 나와서 나머지 사람들을 덮쳐도 상관없는 듯이 말하다니!

그보다 더 중요한 일들은 얼마든지 있었다. 예를 들면 먹을 것을 확보하는 일 같은 것 말이다. 이제 사람들은 어렵פות하게나마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간이 닥쳐오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더 이상 가져올 물건이 없었다. 무엇보다도 식품과 약품이 없었다. 외부인들이 마트와 편의점을 모두 약탈했다. 처음엔 그들끼리 질서를 만들어 사용했지만, 점점 물건이 떨어지자, 약탈이 이어졌다. 정육점, 음식점, 옷 가게, 철물점 등등 약탈해 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자 제품에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간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약국에서 약을 가져왔다. 그때 나도 거기 있었는데, 약사 아저씨가 우리를 도와주었다. 그런데 약탈자들이 약이 든 병과 캔, 상자 등이 담긴 바구니를 빼앗으려고 했다. 우리는 그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그 결과 약은 지켜 낼 수 있었다.

자판기도 남김없이 약탈당했다. 그 다음엔 주유소 차례였다. 사람들은 양동이와 주전자에 기름을 담아 집으로 가져갔다. 모두들 나중을 위해 확실하게 피난 준비를 해 두려는 것이었다. 아직 이곳 도로는 뚫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집 한 채가 화염에 휩싸였고, 이웃해 있던 두 집도 함께 타 버렸다. 대학생이 실수로 담배꽂초를 휘발유 통에 떨어뜨려서 일어난 불이었다. 이웃집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대학생을 때려죽였다. 그러나 살인자를 체포하거나 처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한 무리의 젊은 남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기어들어가 자전거를 끌고 나오는 걸 보았다. 그들의 집 벽이 무너지면서, 아이들은 목숨을 잃었다. 부모님은 너무도 흥분한 나머지, 자전거를 누가 가져가든 말든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자전거가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었고, 쓰레기 더미도 넘어 다닐 수 있었다. 하지만 도대체 저걸 타고 어딜 가겠다는 걸까?

한번은 삼촌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교회 정문을 지나가는 걸 보았다. 삼촌은 어깨에 자루를 하나 메고 있었다. 삼촌도 약탈한 것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자루가 창고에 세워져 있었는데, 연탄이었다. 삼촌은 연탄을 더 가져오려고 사촌 동생을 데리고 나가고 없었다.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연탄을 가져온 거지? 따뜻해지면, 쓸모 없어질 텐데!”

엄마가 화가 나 소리쳤다.

“우리는 계속 여기에 있을 거예요?”

내가 물었다.

“여기에 있어야지. 그럼 어딜 가겠어? 삼촌은 집으로 간다고 말하지만, 가능하겠니?”

엄마가 소리 질렀다.

나는 허름한 창고 앞에서 두 사람을 찾아냈다. 삼촌과 사촌 동생은 미친 듯이 연탄을 가

저가는 사람들 틈에서 연탄을 자루에 담고 있었다. 얼굴은 온통 검은 가루투성이였다. 사촌 동생의 두 뺨으로 가느다란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 옷소매로 얼굴을 닦았다.

“집에 가, 내가 할게.”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녀는 집 쪽으로 달려갔다.

내가 자루를 메고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집에 없었다. 나는 그녀를 찾아 사방으로 돌아다녔다. 뒤늦게 엄마는 그녀가 할아버지의 별장에 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냈다. 그녀는 정말로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마당 앞에 놓아둔 의자에 앉아 긴 머리를 빗으로 빗고 있었다. 빗은 할머니 것이었다. 할머니는 정자 대들보 위, 늘 같은 자리에 빗을 놓아두었다.

그녀는 내가 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나무 사이로 바람이 물결치고 있었고, ‘좌-좌-’ 소리를 냈다. 그때 그녀가 나지막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렸다. 노랫소리에 나는 기분이 좋아졌다.

그때부터 삼촌은 그녀가 집 밖으로 나가는 걸 허락했다. 그녀는 매일 별장으로 갔다. 비가 오는 날에도 쉬지 않고 말이다. 친구는 동생이 어디로 가는지 물었다. 이후 나는 종종 교회 창문으로 돌이 지나가는 걸 보았다. 그때마다 그녀는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았고, 누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친구는 이것저것 볼거리가 많은 탓에 맨날 그녀한테 질질 끌려가다시피 했다.

정말 그림처럼 아름다운 날들이었다. 날마다 햇빛이 내리쬐어 출기보다 더웠고, 새벽에 산책하기에 딱 좋은 날씨가 이어졌다. 그러나 감히 숲속 깊이 들어간다가나, 열매 같은 것을 꺾을 용기를 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 곳은 벌레가 득실거릴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사방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평화로운 풍경도 더 이상 없었고, 자연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여겼다. 그러면서도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근처 계곡에서 물을 떠 왔다.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생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저 멀리 오염되지 않은 식수를 찾으려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으며, 그렇다고 이 계곡물을 전문 약품으로 소독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

“물을 끓여서 씹시다.”라고 서로 약속만 할 뿐이었다.

교회에선 물을 끓이지 않았다. 누가 환자들이 마실 그 많은 물을 끓이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그 사이 저수지와 교회를 잇는 호스가 설치되었고, 수동 펌프도 하나 작동되고 있었다. 이제 나는 그냥 양동이 가득 물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기만 하면 되었다. 각층마다 병자들이 물을 채다시피 가져갔다. 도와줄 사람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환자들은 더 이상 바깥뜰에 누워 있지 않았다. 그러나 건물 안은 초만원이었다.

사촌 동생과 엄마는 적적했던 탓인지, 교회에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한 두 번 간호를 하더니, 이제는 아예 거기서 사는 듯이 했다. 삼촌은 못마땅히 여기고, 지도를 열심히 훑어보

기 시작했다.

세 달쯤 지나던 때에, 삼촌은 사촌 동생을 데리고 마을을 떠나겠다고 했다. 삼촌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이곳에 더 머무르고 싶지 않았다. 휘발유 몇 통을 약탈해 두었기 때문에 서울까지 걱정이 없다는 것이었다. 엄마는 그런 삼촌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엄마는 교회 일을 돕고 나서부터 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골똘히 생각에 잠기던 것도 그만두었고, 아이들을 돌보는가 하면, 삼촌도 도와주었다. 옛날에 알았던 사람들을 찾아다니기도 했다. 엄마는 마을 저수지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놀게 했다. 게다가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떠 준 조끼를 풀어 애들 윗도리를 떠 주었다. 사촌 동생도 엄마에게 전염되었는지, 아이들에게 달려들어 하루 종일 놀아주었다.

나는 삼촌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걸 느꼈다. 이제 삼촌은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태까지 대부분의 결정을 엄마가 내려왔기 때문이다.

드디어 엄마는 교회 안을 들여다볼 정도가 되었다. 환자들이 있는 방에 들어서자, 엄마는 구역질했다. 그러나 교회 마당에 있는 아이들을 보고 엄마는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엄마는 그 길로 오래된 초등학교 친구 두 명을 찾아가 도와 달라고 설득하고, 어떤 저택의 정문을 부수어 줄 사람도 찾아냈다. 저택은 폭탄이 떨어지기 이전부터 비어 있었다. 엄마는 친구들과 함께 깨진 유리조각과 계단에 떨어져 내린 천장재 부스러기들을 삽으로 퍼내고, 커다란 방에 아이들의 잠자리를 마련했다. 산골에 있는 저택은 어딘가 꺼림직하고, 낡아 보였지만, 모양만은 그럴싸했다.

엄마가 교회 안쪽을 본지 이틀째 되던 날, 엄마는 벌써 20명이 넘는 아이들을 돌보게 됐다. 아이들은 모두 열 살 아래였다. 교회 앞마당에 있던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를 잃고 마을을 전전하며 구걸하던 아이들도 있었다. 사흘째 되던 날, 저택에는 4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머무르게 되었다. 아이들은 낡은 소파 위에서 잠을 잤는데, 근처 쓰레기장에서 구해 온 것이었다. 아이들은 침대를 한참 멀리 있는 저택으로 직접 날라야 했다. 할 일이 워낙 많은 데다가 음식도 저택으로 날라야 하기 때문이었다.

엄마는 거의 저택에서 살다시피 했다. 사촌 동생도 세 명의 아이를 데리고 엄마를 도왔다. 사촌 동생은 불 다루는 일을 맡았다. 엄마와 동생은 그 ‘아이들’ 이야기만 했다. 두 사람 모두 나도 함께하길 바랐지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교회에는 환자들을 도와주려는 사람이 없었다. 환자들의 비참한 모습을 한번 보고 나면 아무도 도와주려 들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교회 일을 그만둘 수 없는 형편이었다.

교회에서 보내는 하루하루는 갈수록 끔찍했다. 교회는 중환자들과 죽어 가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죽은 사람들의 자리는 곧 시내 외곽에서 온 새로운 환자로 다시 채워졌다. 환자들은 대부분 기생충에 시달렸다. 첫 번째 증상은 멈추지 않는 갈증이었다. 갈증은 많은 환자를 거의 반쯤 미치게 했다. 그 다음엔 구토와 설사, 고열이 이어졌다. 머리카락이 다발로

빠졌고, 온몸에 요철이 생겼으며, 피를 토했다. 가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아무것도 삼키지 못했고,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었다. 그리고 모든 피부와 점막에서 피가 났다. 마지막으로 환자들은 헛소리를 일삼다가 의식을 잃고 죽었다. 경과가 빨리 진행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통이 오래가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거의 모든 환자에게서 죽음의 그림자가 엿보였다. 폭발이 있던 그날, 시내에 있던 사람들일수록 증세가 더 심각했다.

환자들 가운데 시내 사람들은 그날 오전에 고향에서 오거나 고향으로 가던 사람들, 혹은 폭발 직후 고향 주변에 잠깐 머물렀던 사람들뿐이라고 했다. 목사님과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듣자, 엄마가 걱정되었다. 그리고 환자 중엔 논산에서 전주로 온 부부 한 쌍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여행을 가던 도중 검은 가루를 뒤집어썼다고 했다.

그 말을 들으니, 엄마가 더 걱정스러워졌다. 사실 엄마만 걱정되는 게 아니었다. 동생도 섬광을 함께 쬔었다. 동생은 거기다가 삼촌과 나갔을 때, 벌레를 얼굴에 뒤집어썼다고 했다. 나도 잠깐 동안 가루에 노출되기도 했다. 그러니까 나도.....

신기하게도 그런 불확실한 불안이 오래가지는 않았다. 내 자신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 볼 시간도 별로 없었다. 하지만 나는 전주 사람들이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놀랄 뿐이었다. 땅의 울림은 이후 북쪽으로 이동하는 듯했다. 전주에서 시작한 것도 아닌 것 같았다. 그리고 전주 시내 중심이 아니라면 직접적으로 벌레 때를 본 사람도 없었던 것 같다. 때마침 강한 남풍이 불어 검은 구리를 전주에서 북쪽으로 몰고 갔다. 그래서 아마 전주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엄마는? 그리고 사촌 동생은?

나는 환자들 사이에 누워 있는 엄마와 동생을 상상해 보았다. 소름이 끼쳤다. 한밤중에 나는 문득 전주 역시 분명히 파괴되었고, 모르는 사이 이 땅 아래에는 온통 벌레들만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온몸이 얼어붙는 공포가 밀려왔다.

우리가 전주에서 고향으로 다시 내려갈 때, 울림이 우리를 앞지르지 않았나? 아마도 땅 아래 그것들은 겨울이 지나고 여름이 돌아오면 완전히 깨어나지 않을까?

엄마가 설사 때문에 고생하자 나는 겁이 났고, 사촌 동생이 열이 나자 훨씬 더 걱정되었다. 하지만 그때는 모든 사람이 이따금 설사했고, 사촌 동생은 전에도 자주 열이 났다. 어렸을 때부터, 동생은 흥분만 하면 약간 열이 오르곤 했다.

그런데 동생의 유난스러운 설사는 뭐지? 혹시 그 증상이 아닐까? 하지만 날마다 날씨는 따뜻해졌고, 사촌 동생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서 일했다.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 그렇게 물을 많이 마시는 건 당연한 게 아닐까?

재해 기간 동안 하루가 두 배는 더 길어진 것 같았다. 하루가 영원같이 느껴졌다. 나는 폭탄이 떨어진 지 벌써 5년쯤 지난 것처럼 생각했다. 겨우 2달이 지났을 뿐이었는데 말이다. 2달 사이에 나는 완전히 18살이 되었다. 엄마는 내 생일을 기억하지 못했다. 저택 일이 너무 바빴기 때문이었다. 삼촌은 이곳저곳 폐허 더미들을 찾아다니며, 여행에 쓸 물건들을 주워 모았다. 여름이 오기 전에 차에 있는 모든 구멍을 막으려고 했다. 집에 있는 구멍들은 막긴 했지만, 강력한 턱을 지녔다면, 언제든지 찢길 수 있었다. 그렇지만 누구도 할 엄두를 내지 못했고, 삼촌이 하지 않았기에 더더욱 그랬다.

친구는 내 생일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한가로이 지냈다. 가끔 어디론가 사라지기도 했다. 그리고 나를 껴안고 이마에 뽀뽀를 해주었다.

“내가 살아남기를 바라.”

친구가 말했다.

폭발이 있기 전, 나는 생일 선물로 새 스마트폰을 원했다. 이렇게 소원을 빌었던 것을 기억하고 보니, 그저 놀라웠다. 예전에 사람들이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했고, 또 많은 것을 얻던 일이 신기하게만 느껴졌다.

그래도 생일 선물 없이 그냥 지나가진 않았다. 사촌 동생이 별장에서 찾아낸 매화로 자그마한 매화관을 엮어주었다. 할아버지는 항상 정원에 꽃들을 심어, 가꾸곤 했다. 별장이 사실상 집이었기 때문이었다.

예전 같으면 난 작은 화한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런 걸 도대체 어디에다 써먹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받고 즐거워했다. 나는 아직도 그 관을 가지고 있다. 가장자리가 다 망가져 형편없는데도 말이다.

삼촌이 여행 채비로 바쁘던 날 저녁, 밤늦게 돌아온 나는 뒷문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와 소파에 피곤에 절은 몸을 던졌다.

그때 사촌 동생이 내게 다가왔다. 한겨울이라 사방은 아직 잿빛이었다. 그녀의 얼굴을 나는 잘 볼 수 없었다. 그녀는 내 옆으로 다가와 소파 가장자리에 앉았다. 그녀 손에는 빛이 들려 있었다. 빛은 별장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달빛 속에서 동생을 보고 있으려니, 새삼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높은 이마와 삼촌의 가늘고 쪽 뺨은 코를 쏙 빼담았다. 깊은 눈동자에 속눈썹은 길고 진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머리카락이 가장 아름다웠다.

“왜 그래?”

그녀는 대답이 없었다. 그냥 빛을 쥔 손을 들어 머리카락을 빗어 내릴 뿐이었다. 빛에는 결 좋은 머리카락이 한 다발이나 매달려 있었다. 그녀는 빗살에서 머리카락을 훑어 내어 싸구려 가죽을 씌운 소파 팔걸이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한 번 더 빗질을 했는데, 다시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져나왔다. 반짝거리는 검은 머리카락이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잘 알고 있었다. 나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삼촌도 알고 계셔?”

“오빠 말고는 아무도 몰라.”

그녀가 대답했다.

“오빠만 알고 있어. 아직 눈치챈 정도는 아니니까.”

나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그동안 나는 머리카락이 빠진 환자들을 너무도 많이 보아 왔다. 그러나 여기 이 사람은 나의 동생이었다. 내가 동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순간에야 비로소 확실히 알게 되었다.

“어쩌면 그것하곤 전혀 관계없을지도 몰라.”

나는 쥐어짜듯 말했다.

“어쩌면 영양 부족 때문일지도 몰라.”

그녀가 미소 짓는 것이 보였다. 나는 그녀가 증상을 정확히 알고 있고, 더 이상 희망을 가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한 번 더 만져 봐. 나중에 내 머리카락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얘기할 수 있게.”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는 손바닥을 펴 머리카락을 내밀었다. 나는 그것을 쓰다듬어 보았

다. 그런 다음 그녀는 자기 방으로 건너갔다. 오늘은 엄마가 교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자는 날이라서 그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날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날 밤 그녀가 틀림없이 뜬 눈으로, 지샬 것이라고, 생각했다. 소파 팔걸이에 놓여 있는 머리카락 다발이 눈에 들어오자, 더 이상 나는 어떻게 해 볼 수 없었다. 나는 베개로 입을 막고 영영 울어 버리고 말았다.

다음 날 내가 밖에서 돌아오자, 친구가 동생의 뒤를 쫓아다니며, 귀찮게 하는 것이 보였다. 동생이 무언가 숨기는 듯 하자, 친구는 동생의 머리를 팔로 감싸 안았다. 머리를 조금 털어주자, 그녀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 떨어졌다. 친구는 그대로 멈추어 서고 말았다.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주워서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친구는 결눈질로 그녀를 흘금흘금 살펴보며, 당황한 것처럼 보였다.

폭발이 있고, 세 달 뒤, 모두 예상하지 못한 그것이 발생했다. 처음으로 독감 증상이 나타난 것이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입 밖에 내려고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집에 독감 환자가 있어도 숨겼고, 그 사람에게 다른 병명을 붙여 주었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 정말 자기들이 독감과 관련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대체 누가 예상했을까? 고열과 기침은 그저 심한 감기이거나 기생충의 다른 증상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내 생일이 지난 며칠 뒤인 지금, 전염병은 빠른 속도로 널리 퍼져 나갔다. 집집마다 환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러나 병원으로 데려가 봤자 소용없는 일이었다. 애초에 작은 병원이고, 약도 없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감당해 낼 수 없는 처지였다. 애초에 이곳에는 한 명의 의사와 한 명의 약사만 있었다. 의사 직업으로 거주만 하던 사람이 3명 정도 있었지만, 그중 한 사람은 가족을 버리고 이곳을 떠나 영영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남은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독감에 걸리고 말았다. 그 사람은 두 다리를 지탱하고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허약해진 상태에서 몇 주를 버텼다. 마지막 남은 두 사람이 계속 일을 했지만,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었다. 약도, 붕대도, 소독약도 남아 있지 않았다. 더 이상 남아 있는 게 없었다. 그냥 환자들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가 줄지어 누워 있는 환자들 사이를 오가며 친절하게 이쪽저쪽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을 몇 번 보았다. 그러던 사람이 언젠가부터 아무 곳에도 멈추어 서지 않았고, 몸을 굽혀 누구를 살펴보지도 않았다. 환자들의 끊임없는 비명 소리에도 전혀 대꾸하지 않았다. 어느 날, 사람들은 교회 안쪽 창고에서 죽어 있는 그를 발견했다.

도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외부로부터의 원조를 기대하기 시작했다. 중앙 정부에서 전염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사람들을 태우고 여기로 오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역시나 그랬어. 우리나라는 섬이지만, 강력한 동맹국이잖아. 일본이든 미국이든, 아님 중국이든 우리나라를 도와줄 의무가 있잖아? 일본에서 지진 피해가 났을 때, 우리가 수십억 원을 원조해 주었잖아. 중국에도 마찬가지로.”

할아버지가 말했다.

“어쩌면 일본도 지금 우리와 똑같은 상황일지도 모르죠. 아예 사라졌을 수도 있고. 아님 우리나라를 봉쇄한 후 아예 없애 버릴 계획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라는 이미 결단 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 도망쳐야 한다고요!”

삼촌이 흥분해서 말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헬리콥터를 보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마을 전체를 기대에 찬 흥분 상태로 몰고 간 소식이었다. 하지만 호송 차량 행렬이 도착하지 않고 헬리콥터도 나타나지 않자, 모든 희망이 무너져 내렸다. 그와 함께 마을에 남아 있던 마지막 질서도 무너져 내렸다. 아무도 환자와 고아들, 그리고 노숙자들에게 죽을 끓여 주지 않았다. 아무도 죽은 사람들에게 대해 묻지 않았다. 두 번째 폐죽음이 막 시작되었는데도 말이다.

마지막까지 교회에 남아 있던 봉사자들도 교회에 나타나지 않았다. 모두들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했다. 아직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 아직 기어갈 힘이 남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났다. 곧 교회에는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이 누워 있게 될 터였다. 수많은 도시 사람과 노숙자들은 서둘러 주변 숲으로 옮겨 텐트를 치고 야영을 했다. 그렇게 하면 전염병을 피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미 몸속에 바이러스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서로 감염되었다. 나는 내가 마지막까지 돌보던 아이를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 나중에 들어 보니, 그 애는 건넌마을 숲속에서 죽었다고 했다. 그 숲은 평소에 가볼 생각도 하지 않은 고요한 곳이었다. 옛날에 한번 할아버지와 가본 경험이 있었다.

도시에서 머물렀던 사람들도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는 집 밖으로 나올 엄두를 내지 못했다. 손잡이란 손잡이, 계단 난간이란 난간은 모두 병균에 오염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마주치는 사람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일 수도 있었다. 낮에는 마을 전체가 다시 죽은 것처럼 고요해졌다. 전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밤만 되면 다시 골목길마다 생기가 감돌았다. 사람들이 양동이를 들고 조용히 계곡으로, 초록색으로 물든 저수지로, 썩은 듯이 고여 있는 웅덩이로 물을 길러 갔다. 그럴 때면 사람들은 서로 피해 다녔다. 그저 먼발치에서 새로운 소식들을 서로 건넌 뿐이었다. 새로운 소식이라고 해 봐야 누구누구가 죽었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마치 사람들은 감염의 원인이 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거의 그런 것처럼 보였다.

엄마와 사촌 동생은 저택에 독감이 발생했는데도 하던 일을 계속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어떻게 아이들의 주린 배를 채워 줘야 할지 난감해했다. 하는 수 없이 내가 밭에서 감자를 훔쳐 왔다. 감자는 아직 공깃돌보다 작았다. 내가 아이들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은 양의 감자를 캔다는 것은 정말 무리였다. 엄마가 저장 물품들을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자, 엄마와 삼촌은 서로 맞붙어 싸웠다.

“곧 나는 떠날 거야. 이 지긋지긋한 곳에, 남아 있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그렇게 나눠주면 우리는 뭘 먹고 살아?”

삼촌이 물었다.

“아이들이 굶어 죽는 모습을 그저 보고만 있으라고?”

엄마가 열을 올리며 되물었다.

나는 그 말에 깜짝 놀랐다.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삼촌도 다른 사람이 되어 버렸다. 예전보다 더 엄하고, 더 무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엄마의 맞수가 되지 못했다.

“교회를 봐.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줄지어 굶어 죽거나 병 때문에 처절하게 죽어 가고 있어. 그 사람들에게는 먹을 걸 나눠 주고 싶지 않아?”

삼촌이 소리쳤다.

“아직 어린 애들이라고!”

엄마가 소리쳤다.

“너무 많은 걸 감당하려는 거야.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사람이 끝낼 줄도 알아야지 말이야!”

삼촌이 고함을 쳤다.

“하지만 나한테 안 통해, 나한테 안 통한다고!”

“우린 벌써 남의 아이 하나 데리고 겨우겨우 지내 왔어. 남은 겨울을 무사히 나려면 우리 모두 운이 좋아야 해.”

“만약 너와 내가 죽었다고 상상해 봐. 우리 애들은 교회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고 말이야. 그 애들을 아는 사람도 없고,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도 없어. 어떻게 하겠어, 어?”

엄마가 말했다. 그러자 삼촌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랐다. 나는 삼촌이 떠나는 것을 보고, 들에 나가서 감자를 캐오려고 했다. 하지만 곧 그렇게 많은 감자를 캐어 올 필요가 없어졌다. 엄마가 돌보던 아이들이 갑자기 떴어 죽은 것이다.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고, 저택 전체에 불을 질렀다. 죽은 아이들은 그 안에서 참혹하게 녹아내렸다.

삼촌은 사촌 동생을 데리고 가려 했다. 나까지도 말이다. 삼촌은 우리에게 대한 걱정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다. 내가 자발적으로 가지 않으면 차에 가두어 놓겠다고 으박질렀다. 그 말에 나는 길길이 날뛰었다. 나는 더 이상 자신을 어린 애로 느끼지 않았고, 어린아이처럼 취급받고 싶지도 않았다. 나도 자신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었다.

“만약 내가 병에 걸린다면,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 몸속에 바이러스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난 계속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다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화가 나 소리쳤다.

사촌 동생도 삼촌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그녀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고모가 계속하면, 나도 계속할 거예요. 고모 혼자 그 일들을 다 해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네가 감염된다면? 넌 죽을 수도 있어!”

삼촌이 소리 질렀다.

“그래서요?”

그녀가 따지듯이 물었다.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에 눈길을 던졌다. 머리숱이 적어졌고, 윤기가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빗질을 하지 않았다. 엄마, 삼촌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물을 많이 마시는데, 이상하게 생각되지도 않았을까? 하지만 엄마, 삼촌도 수척해 보이긴 마찬가지였다. 마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숨을 멈추고선, 아무것도 예감하려고 하지 않고, 아무것도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온 마을에 악취가 진동할 정도로 죽은 사람이 차고 넘치자, 독감을 이겨낸 남자들 몇 명이 뭉쳤다.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실어 와 15분마다 한 무더기씩 쌓아 올리고 기름을 부어 불을 붙였다. 집 전체에 죽은 사람만 있다면, 그냥 집을 모두 불태우기도 했다. 아직도 휘발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대부분의 집은 아직 라이터와 성냥 정도는 갖추고 있었다.

교회에도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윤태양이라는 젊은 남자

는 나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변호사였는데, 내가 본 것 중 가장 멋진 스포츠카를 갖고 있었다. 그는 젊은 여자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는 교회 뒤 숲속 구덩이에다 시체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걸 도왔다. 집에선 무더기를 볼 수 없었다. 그러나 불에 탄 시체 냄새는 이전보다도 강해져서 몇 주 동안이나 마을 전체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이제는 나와 목사님 단둘이 남아 있는 환자들과 함께했다. 교회에는 돌봐야 하는 환자들이 많지 않았다. 기생충이나 독감으로 죽지 않은 사람은 굶어 죽었다. 아직 교회에 누워 있는 사람들에게겐 더 이상 가족도 없었다. 모두들 그들 곁을 완전히 떠나갔다. 내가 더럽고 냄새나는 유아실에 발을 들여놓으면, 아직 의식이 있는 환자들은 잔뜩 희망에 부풀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다. 큰 소리로 나를 부르는 사람에겐 대답해 주었지만, 소리쳐 부르지 못하는 사람에겐 눈길 한 번 건네지 않았다. 나도 완전히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내가 환자들에게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끔찍한 갈증을 가시게 해줄 마르지 않은 저수지 물뿐이었다.

숨을 거둘 때 보면, 환자들은 대부분 뼈대에 가죽만 붙여 놓은 것 같은 물골을 하고 있었다. 내 두 팔이나 땀 흠뻑 젖은 더러운 스웨터를 꼭 붙잡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나를 놓지 않았다. 마지막 힘을 다해 양동이를 잡아당기거나 플라스틱 컵을 물고 돌려 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는 죽어 가는 사람들을 주먹으로 쳐서 스스로 방어해야 했다. 그리고 옷을 꼭 붙잡고 늘어지는 그들의 손가락을 떼어 내야 했다. 아직 힘이 남아 있는 환자를 보면, 때때로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까지 했다. 그들은 필시 내 목숨을 원했을 것이다. 몇 시간이라도 눈을 붙일 수 있도록 교대해 준 목사님을 제외하면, 그들은 마치 내 목숨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았다.

나는 공정하게 하기 위해 방에서 방으로 정확한 순서를 따랐다. 환자들을 한 바퀴 다 돌아보고 다시 한 번 돌 때면, 임종을 앞두고 특히 거칠게 굴던 몇몇은 그 사이에 죽어있기도 했다.

유난히 따뜻했던 어느 날 오후, 나는 교회 지하실에서 고열로 쓰러지고 말았다. 목사님이 나를 발견하고 엄마를 데려왔다. 엄마가 나를 집으로 끌고 왔다. 며칠 사이, 우리 가족은 병에 걸리고 말았다. 사촌 동생만 멀쩡했다. 나는 이 주 넘게 소파에 누워 삶과 죽음 사이를 오갔다. 의식을 잃을 정도로 계속 열이 올랐다가 다시 정상 체온으로 푹 떨어지곤 했다.

열이 떨어지는 주기에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엄마도, 삼촌도, 친구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만이 나를 간호하고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몸을 숙일 때, 슬픈 모습으로 웃으며 나를 바라보곤 했다. 그녀는 더 훌쩍해졌고, 두 눈은 쾅했다. 그녀는 내가 교회에서 병자들의 입술에 대 주었던 것처럼 내 입술에 컵을 대 주었다. 이따금 말 한마디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지기도 했다. 한번은 열이 오르자,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녀의 옷소매를 잡고 손을 꼭 붙잡았다. 또 한번은 그녀에게 왜 머릿수건을 두르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곧 뭘 물어보려고 했는지 기억해 내지 못한 적도 있었다. 그녀는 나를 씻겨 침대로 옮기고, 차를 끓여 주었다. 그녀가 물 떠 오는 소리, 장작 패는 소리도 들렸다. 창고 옆에 놓아둔 화덕에선 바작바작 소리를 내며 불이 타고 있었다.

한번은 그녀에게 왜 이렇게 집 안이 조용하냐고 물었다.

“모두 잠들어서 그래. 오빠도 잠이나 자 뒤.”

그녀가 말했다. 그러자 나는 순순히 잠이 들었다. 몇 마디 말을 한 것이 너무 힘들어서 말이다. 나중에 그녀는 내가 하루 종일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조금 회복되었을 때, 나는 엄마가 죽었다는 것을 들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는 내가 아프고 하루 뒤에 앓았다고 했다. 그녀는 내 옆방에 누워 있었다.

내 친구는 엄마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내 친구만 다시 일어났다. 내 친구는 열 몇 번으로 독감을 스쳐 보냈다. 나는 그 애가 별장으로 갔다는 것을 들었다.

“난 독감에 걸리지 않았어. 다른 게 나를 점찍어 놓았거든.”

그녀는 엄마의 시체를 다른 이들에게 부탁하라고 했다. 그녀는 그 말을 할 만한 힘이 남아 있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며칠이 지난 후에야 겨우 윤태양에게 그것을 부탁할 수 있었다. 엄마는 뼈만 앙상할 정도로 말라 있었다.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자, 절규했다. 두 눈엔 눈물이 가득했다. 잠시 후 윤태양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말했다.

“엄마는 거기서 잘 지낼 거야. 우리 앞에 닥쳐올 일을 누가 알겠어.”

“정말 피도 눈물도 없구나.”

나는 흐느껴 울었다. 그리고 나는 사촌 동생을 불렀다. 그녀는 무척 야위어 청바지 엉덩이 쪽이 헐렁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먹으려 하지 않았다. 그냥 물만 마시려 들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물을 넘기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한번은 그녀가 두르고 있던 머릿수건이 흘러내린 적이 있었다. 나는 그녀의 모습에 그만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곧 나는 비명을 지른 것을 후회했다. 내가 놀랐던 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주었는지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몸 색깔이 변하고, 몸에 깊고 볼록한 요철이 나타난 다음, 그녀는 죽었다. 불평 한마디 없이, 나에게 받은 상처를 되치기라도 하듯 아주 조용하게. 그녀는 그냥 그렇게 가 버렸다.

그녀의 그 복수는 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 그녀의 죽음은 나의 탓이 아니다. 그러나 명칭하게도 나는 자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그녀를 항상 질투했다. 그녀는 언제나 나보다 좋은 성적을 받았다. 주변 친척들은 삼촌에게 이런 딸을 두어서 축하한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번번이 엄마를 실망시켰다. 게으름뱅이에 돌머리인 나는 항상 한 학년, 한 학년을 턱걸이로 겨우겨우 올라갔다. 마음 깊은 곳에 열등감과 박탈감도 느낀 적이 있다지만, 겨우 그것은 죽음을 눈앞에 둔 자가 받은 상처에 비할 것이 아니었고, 존재조차 잊어가던 그 열등감도 그렇게 화신하여서는 안 되었던 것이다. 끝없는 자책 속에서 그녀의 마지막 복수는 내게, 부처의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관용으로 다가왔다. 그렇기에 나는, 그녀에게 쓰라리게도 미안해하며 외려, 이제는 죽은 자에게까지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위한 무덤을 팔 힘이 없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손수레를 끌고 골목길을 지나다니며 “죽은 사람! 죽은 사람!”하고 소리치는 그 남자들에게 그녀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그렇긴 해도, 난 그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서둘러 그녀에게 머릿수건을 씌웠다... 결국 나는 죽은 그녀에게도 용서받기는 틀렸나 보다. 그리고 난 뒤, 그 남자들은 들고 온 들것에 그녀를 아주 거칠게 던졌다. 들것이 나갈 때, 이 집에는 나 혼자 있었다.

“운동화 좀 벗겨. 태워 버리기엔 너무 아깝잖아. 이제 운동화 같은 건 구할 수도 없는데. 나중에 니가 신어도 되겠어.”

한 사람이 나에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면 내가 가져가야겠다. 우리 조카가 살아 있으면, 개한테나 줘야지.”

또 다른 남자가 말했다.

그 말에 나는 그녀의 발에서 운동화를 벗겨 방 안으로 던져 버렸다.

“쫓쫓, 그렇게 굴지 마라. 이런 때에는 그런 자질구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없어. 실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면 죽는거야.”

그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자 진땀이 났다. 그 정도로 몸이 허했다. 나는 그 사람들의 등 뒤에 대고 쿵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문을 닫았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지 않았다. 그리고 소파에 쓰러져 울기 시작했다.

친구는 신체적인 면에선 나보다 회복이 빨랐다. 나는 엄마와 동생의 죽음에서 헤어나지 못해, 침묵에 빠졌다.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밖에도 나가지 않았고, 교회, 저택으로는 눈길조차 던지지 않았다. 그냥 내 친구에게만 온 관심을 기울였다. 나는 이제 내 친구에게 끔찍이 매달렸다. 그리고 그 친구도 마찬가지였다. 그 사실에 안심되었다.

그녀는 정말 오뎅이 같은 아이였다. 아무것도 그 친구를 쓰러뜨릴 수 없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일이 있었지만, 곧 기분이 좋은 듯 생글거렸다. 항상 밝았고, 모든 것에 만족했다. 그녀와 놀아줄 때면 나는 내가 겪었던, 그리고 내 앞에 놓여 있는 끔찍한 일들을 잠깐이나마 모두 잊을 수 있었다. 그녀는 일찍이 이런 생활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여겼다. 그 애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다. 단지 가끔 밤이 되면 애처롭게 창문에 걸터앉아 있곤 했다.

나는 교회 사람들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 것을 감행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그녀는 내가 유령처럼 보인다고 했다. 3월 말이 되어서야 나는 비틀거리면서 교회로 갈 수 있었다.

교회는 텅 비어 있었다.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들어 냈던 것이다. 텅 빈 방마다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바닥엔 아직도 피와 오물 그리고 토사물들이 들러붙어 있었다. 나는 목사님을 찾아보았다. 여기에 오면 틀림없이 목사님을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했다. 그걸 기대하며 기뻐했는데,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나중에 마을 사람들에게 목사님을 보지 못 했냐고 물어보았다. 하지만 독감이 돌고 난 뒤, 그를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지하실에서 작고 더러운 곰 인형 한 개를 발견했다. 나는 그녀에게 주려고 집어 들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은 너무나 힘들었다. 집에 도착하자, 나는 땀에 흠뻑 젖은 채 소파에 쓰러졌다.

며칠 동안, 그녀는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다. 그녀는 기분이 가라앉아 있었다.

“나 임신한 것 같아.”

그녀가 말했다.

나는 깜짝 놀라 그녀를 뻘뻘히 보았다.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마 아닐 거야.”

나는 성교육 시간에 배운 것들을 생각하며 말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임신이 확실해. 그날 밤일 거야, 폭탄이 터졌던 그날 밤.”

“어떡해.”

그녀는 흐느껴 울었다.

돌아다녀도 될 만큼 힘이 생기자, 나는 주변 지역을 두루 답사했다. 한번은 내가 그녀를 위해 기름기 있는 음식을 구해 보려고 시내로 간 적이 있었다. 시내에는 텅 비어 있었고, 마트들도 아무것도 없었다. 갈라진 아스팔트 사이로 잡초가 돋아나 있었다. 나는 원래 우리 집 쪽을 내다보았다. 이젠 연기마저 나지 않았다. 마치 예전의 우리 마을처럼, 생기 없는 그곳처럼, 고요했다. 그런데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골목길로 수염을 깎지 않은 한 남자가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 사람은 등에 배낭을 메고 아이 한 명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뒤에서 조심스럽게 등을 밀며 또 한 아이를 앞세워 오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 사람을 관찰했다. 하지만 손에 든 무기도 딱히 없었고, 개 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사이렌도 울리지 않았다. 우리가 서 있는 곳까지 오자, 그 사람은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다.

“운이 좋으셨습니다.”

내가 물었다.

“왜요?”

아저씨가 답했다.

“여긴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폭탄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다녀서 생긴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조심만 하면 됩니다. 여긴 아직도 불발탄이 넘쳐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길 벗어나서 도망갈 수 있는 좋은 시기라는 건가요?”

내가 믿을 수 없어 물었다.

“도망간다고요? 왜요? 지금은 아무도 도망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반대지요. 충청 쪽에선 오히려 우리 쪽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여기 전북 지역은 큰 피해 없이 그 일을 면했습니다. 물론 다른 서울이나, 부산 같은 곳들은 사라져 버렸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대전이나 강원도는 핵폭탄 때문에 완전히 끝장나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독감을 이겨낸 사람이라면 이 지역 주변에서 아직 살 만할 겁니다.”

아저씨가 말했다.

“그런데 보아하니 도망가시는 것 같습니다.”

“저 말입니까?”

아저씨가 놀라서 물었다.

“배낭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기보다 훨씬 더 망가진 곳으로 가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죠. 저기 완주 쪽에 있는 외삼촌 댁을 방문하러 가는 길입니다. 몇 년 동안 그분들이 우리에게 소포를 보내 주셨어요. 요즘은 제가 그분들에게 이따금 햄 덩어리를 건네 드리곤 하지요. 근데, 폭탄이 떨어지고 난 뒤 얼마 안 돼서, 키우던 돼지들이 전부 죽어 버렸습니다. 벌레 먹이가 된 거죠. 그래서 집을 깡그리 불태우고 나왔습니다. 그 대신 사람은 안 죽었으니 된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망한 건가요?”

내가 물었다.

“아니요 완전히 망한 건 아닙니다. 서해 쪽에 공군 기지가 있잖아요. 그쪽은 계속 활동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도대체 요즘 사람들이 뭘 알기는 제대로 아는 겁니까? 그저 소문만 들을 뿐이지요. 신문도, 텔레비전 방송도 없지 않습니까. 이젠 어쩌면 정부조차도 없을지 모릅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산산조각 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겠어요. 내 살던 마을에서는 이장직을 서로 미루고 있는데, 누가 그런 일을 맡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더라도 자기만 살고 보자는 생각들뿐인데.”

아저씨가 말했다.

그렇게 말하며 아저씨는 배낭을 벗었다. 배낭 안에 손을 집어넣더니 나에게 햄 한 덩어리를 꺼내 주었다.

“자, 기름기 있는 음식이 필요한 것 같군요.”

아저씨가 나를 보고 말했다.

“군산 쪽에는 희망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배가 다니니까요. 지도를 줄 테니 잘 가보세요. 자동차가 있다면 훨씬 빨리 갈 수 있을 텐데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자주 봤습니다. 아무쪼록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아저씨가 나에게 말했다.

그런 뒤 아저씨는 살이 포동포동한 작은 여자아이를 다시 안고 걸어가기 시작했다. 나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말조차 할 틈도 주지 않고 말이다.

“저 너머에 희망이 있다는데, 왜 그리로 넘어가지 않을까?”

나는 혼잣말로 지껄었다.

“모를 일이야. 모든 것은 다 소문일 뿐이지.”

나는 원래 다니던 고등학교 주변까지 더 나아갔다가 되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몇몇 농가에 들러 다른 먹을 것이 있는지 물어보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오늘 벌써 12명도 더 그랬다.”

한 농사꾼 할아버지가 말했다.

“누군 뭐 배불리 먹고 사는 줄 아나 보지? 꼬맹이들이 딸린 여자나 임신한 여자라면 벌써 뭘 줘도 줬지. 너는 알아서 해결할 수 있잖아.”

늙은 농부는 화를 내며 으르렁거렸다.

“제 여자 친구가 임신 중입니다.”

내가 말했다.

“누구나 그렇게 말하지!”

농부가 나에게 소리쳤다.

결국 나는 알아서 해결하기로 했다. 농가를 떠나면서 나는 헛간 뒤 구석으로 닭 한 마리를 몰았다. 녀석을 붙잡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내가 그만 녀석의 목을 비틀지 못했다. 닭은 날개를 치며 흥분하여 꼬꼬댁거렸다. 농부가 그 소리를 들은 모양인지, 개를 풀어 놓았다. 개가 미친 듯이 짖으며 달려왔다. 닭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장작더미에서 말뚝을 뽑아 들어 개의 등을 내리쳤다. 그것은 깽깽거리며 슬금슬금 물러갔다. 나는 그 개가 안쓰러웠다. 하지만 손에서 빠져나간 닭이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아무래도 돌아가야겠어.”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해가 질 무렵, 나는 외따로 떨어져 있

는 밭에 심어진 감자 몇 알을 캐내어 배낭을 채웠다. 햄 덩어리를 얻지 못했다면, 오늘은 헛수고한 날이었을 것이다. 나는 다음번엔 더 강하게 협박하기로 작정했다. 나는 약해 보였고, 그러기에 나를 쫓아 보냈던 것이었다.

나는 한밤중이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다. 그녀는 굉장히 낙심한 채 벌써부터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그녀가 방에서 물을 끓이고 있을 때, 누군가 몰래 들어와 창고를 반쯤 비워 버렸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가져온 식량이 절반이 넘게 사라졌다. 도둑은 소리 없이 그것들을 자루에 넣어 창고 창문 밖에서 기다리던 공범에게 넘겨준 것이었다. 이웃 사람이 분명 했다. 내가 새벽 일찍 집을 떠나는 걸 지켜본 것이 틀림없었다. 당근과 배추도 없어졌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 들어갔더니 친구가 있었다. 그녀는 어디선가 주워 온 유모차 안을 이리저리 뒤적거리고 있었다. 전에 신었던 낡은 운동화도 신고 있었다. 그리고 식탁 위엔 가방이 활짝 열린 채 놓여 있었다. 부엌 옆에는 짐이 잔뜩 채워진 또 다른 여행 가방이 세워져 있었다. 그녀는 벌써 두껍게 옷을 꺼입고 있었다. 화덕에 불도 꺼져 있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놀라서 물었다.

“우리는 여기서 살 희망이 없어.”

그녀가 말했다.

“그럼, 어디로 가자는 건데. 설마 군산 쪽으로 가자는 거야?”

“너가 가기 싫다면 나는 혼자서라도 갈 거야. 뱃속의 아기와 나 혼자 말이야. 너는 날 말릴 수 없어.”

그녀는 조롱하는 듯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랬다. 나는 그녀를 말릴 수 없었고, 두 시간 뒤 함께 길을 떠나게 되었다. 여행 가방 두 개와 침낭들을 나눠 들었다. 나는 삼촌이 타고 간 자동차를 생각하며, 삼촌을 원망했다. 그녀는 서류들과 아직 남은 돈을 넣은 핸드백을 메고 있었다.

“돈은 왜 가져가려고?”

내가 물었다.

“그곳에 가면 분명히 이걸로 뭐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니까.”

그녀가 대답했다. 나는 그녀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저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출발할 때 보니, 피란민 한 명이 우리 집 앞에 서 있었다. 나는 그에게 이 집에 살면서 집을 보아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아이와 함께 있었다.

“우리가 떠나 있는 동안만입니다. 노숙자들이 여기에 눌러 앉거나 약탈해 가지 않도록 말입니다.”

나는 몇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했다.

그는 겨울이 다 가도록 다 타버린 저수지 집 쪽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원래 그 집 식구들과 쉬지 않고 싸웠다. 무엇보다도 그가 데려온 아이 때문이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집으로 옮겨 올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었다. 집에는 화덕과 나무도 있었고, 창고엔 아직 먹을거리가 조금은 남아있었다. 헤어질 때, 그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짐을 내가 다 들어주었는데도 그녀보다 내가 더 빨랐다. 그녀는 벌써 몸이 부하게 불어 있었다. 짐작되는 출산 예정일은 아직 6달이나 남아있었다.

난 그저 그녀가 돌아가자고 하길 바랄 뿐이었다. 이걸 그녀의 몸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어쩌면 일주일, 빠르면 오늘 안으로 돌아가자고 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나의 생각은 빛나가 버렸다. 그녀는 불평 없이 계속 걸어갔다. 머리를 숙인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앞만 보고 걸어갔다. 이따금 내가 쉬어 가자고 하지 않으면, 그녀는 뛰어가기도 하고, 나에게 말을 걸기도 했다. 그녀는 나에게 둘도 없는 친구였다. 그녀는 자기 집 얘기를 해주었다. 또 새로 태어날 아기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지 고민했다. 그렇게 나온 이름들은 사실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을 따온 것이었다. 우리가 시내에서 자동차를 잠시 세워놓았던 언덕을 지나게 되었다. 그 옆으로 구급차가 서 있었다. 날이 따뜻해져, 눈은 모두 녹아 있었다. 그러나 자동차 바뀌는 구멍이 나 있었다. 다른 생명의 집터가 된 지 오래인 것 같았다.

나는 잠긴 구급차 안쪽에 두 명의 아이가 무릎을 바짝 올리고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한 아이가 다른 아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서로 바짝 달라붙어 있었다. 조그마한 여자아이들이었는데, 내가 아는 아이들이었다. 독감에 걸리기 전 교회에서 보았던 아이들이었다. 둘 다 눈을 감고 있었다.

“차 안에서 아이들 2명이 자고 있어.”

나는 그녀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놀라서 차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러고는 우울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죽은 거야.”

그녀는 아이 중 한 명의 망가진 얼굴을 가리켰다.

나는 징그러운 나머지 얼굴을 감싸고, 언덕을 내려갔다. 숲속으로 난 도로는 온통 엉망진창이었다. 나는 두 번이나 미끄러졌지만, 운이 좋았다. 나는 예전 고등학교의 교실에 피신하여 밤을 보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를 겨우 연명하며 보내니 벌써 4월 중순이었다. 눈은 녹은 지 오래였고, 날씨는 너무 따뜻해져서 입고 온 옷들을 버릴 지경이었다. 그런 날씨는 며칠간 계속되었다. 4월 보름 동안, 기온은 체감상 20도를 넘어갔다. 지도를 보며 가긴 했지만, 어디가 길인지 도통 알 수 없었다. 군산이 이렇게나 먼 곳인지 의심이 가기도 했다. 그렇지만, 되돌아가기 아까웠으며, 그녀가 날씨가 풀리니 희망에 찬 듯해서 어쩔 수 없었다. 반년 전만 해도, 이런 도보 여행이었다면, 질색했을 것이다.

유모차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우리는 주변 도시에서 무리 지어 몰려나온 사람들이 파헤쳐 놓은 쓰레기 더미에서 고장난 유모차 바퀴를 대신할 다른 바퀴를 찾아내느라 꼬박 하루를 보내야 했다.

우리는 아주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어렸을 때 친구는 걷는 것이라면 자신 있어 했다. 이제는 빨리 걸을 수 없었다. 새로 태어날 아기 때문인지 몸이 너무 무거웠다. 그런데도 그녀는 ‘더 이상 못 가겠어요, 되돌아가요.’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 문득, 나는 그런 그녀에게서, 다 부서져 없느니만 못한 상태에도 그 안의 생명은 잘 자라라고, 어설픈 형태만을 유지하던 어느 바퀴를 비추어 보았다.

나는 익산으로 돌아서 가는 길을 택했다. 그곳으로 가면 어느 정도 걸어갈 만한 길과 밤을 보낼 숙소, 그리고 조금이라도 먹을 것을 나누어줄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우리는 곧 남에게 선뜻 호의를 베풀 만한 사람을 만나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고향을 떠난 뒤부터 우리는 낯선 사람이었고, 노숙자였으며, 온 나라를 떠도는 거지 가운데 한 무리일 뿐이었다. 우리가 어떤 집에 다가가면 문이 닫히고 난 뒤 개가 짖기 시

작했고, 직접 손으로 쓴 ‘구걸하지 마세요. 소용없습니다. 우리도 가진 것 없음!’이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몇몇 집들은 아예 철조망 울타리가 쳐져 있었고, 입구엔 감시원이 서 있었다.

“씩 꺼져!”

감시원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소리쳤다.

“여기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해. 노숙자들이 전염병을 끌고 들어와 여기 도시 사람들의 삼분의 일이 고통받았던 말이야. 억지로 들어오려는 사람은 다 죽여 버리겠어. 전염병이면 다른 곳으로 가. 그걸 걸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란 말이야. 우리한테 노숙자는 필요 없어!”

“어쩌면 저 사람들이 옳을지도 몰라. 우리 불행은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없다는 거야.”

나는 말했다.

우리가 그렇게 비참한 처지만 아니었다면, 정말 아름다운 도보 여행이 되었을 것이다. 아주 가끔 우리는 자전거를 탄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 우리는 그들의 불행한 모습에 우울했다.

파괴된 도시 지역에서 온 배고픈 사람들이 배를 채우기 위해 산속으로 들어갔다. 집 없는 사람들은 방 한 칸을 구걸했다. 아이들은 혹시 우리가 자기 부모를 만나지는 않았는지 묻곤 했다. 길거리엔 병자들, 반쯤 죽어 가는 사람들, 완전히 죽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우리는 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로 바싹 마른 사람, 불구자, 미친 사람, 병어리, 장님 등을 계속해서 보았고, 끔찍한 화상을 입은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다. 그 사람들은 우리 앞쪽에서 와 우리와 엇갈려 지나갔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추월하여 지나가거나 우리가 그들을 추월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캐물었고, 그들도 마찬가지였다. 마치,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집 밖으로 나와 우리나라 전역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였다. 그런가 하면, 외국인도 몇몇 만났다.

어떤 사람들은 전쟁이 계속되는 지 알고 싶어 했다. 그러나 전선도 없었고, 군인도 만나지 못했다. 어떤 사람들은 전쟁이 끝난 지 오래되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또 전쟁은 애당초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모든 것은 다 오해였을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우리는 석고상을 등에 짊어지고 가는 할머니나 서핑 보드를 갖고 가는 젊은 남자처럼 전혀 말도 안 되는 물건들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도 만났다. 유화, 텔레비전 그리고 업소용 계산기 같은 물건들도 몇십 리나 끌려오곤 했는데, 대부분은 물물교환할 것들이었다. 그중엔 기념품으로 간직할 만한 것들이나 새 생활을 위한 밑거름이 될 만한 가치를 지닌 것들도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온 가슴에 약장을 매단 사람도 보았다. 재킷 속에는 셔츠도 입지 않았고, 배고픔 때문에 제대로 걸지도 못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맞은편에서 왔다. 오산, 대야, 임피, 서수에서 온 사람들, 세종이나 서울에서 온 사람들, 심지어 김제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모두 굶주림과 전염병, 그리고 전주를 둘러싼 지역과 정체 모를 벌레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울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했다.

“그러면 바다 건너에는요?”

그녀가 물었다.

“없어요. 상하이, 항저우, 홍콩, 마카오, 가고시마, 나가사키, 후쿠오카, 제주도 같은 남쪽 지역은 이미 큰일 났대요. 거기 지역은 이미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걸 직접 눈으로 보셨나요?”

그녀가 다시 물었다.

“제 눈으로 직접이요? 어휴 아니죠. 몸조심해야지요. 그 지역은 완전히 오염되었어요. 원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군산은 왜 가시는 거예요. 거기도 아마 그럴걸요.”

“봤지? 모두 주장만 하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나중에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하루에 세 번 정도 그런 식의 대화가 오갔다. 그리고 그녀는 지치지 않고 마주 오는 모든 사람에게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았다.

부안에서 온 아저씨는 그녀의 고집에 화가 나서 말했다.

“바다를 보고 싶다면, 거기 주변에는 죽은 사람밖에 볼 게 없을 거다. 부안 쪽 해안가에도 남아 있는 게 거의 없는데 말이야. 군대가 전부 폭격해서 생명체란 생명체는 깡그리 죽었어.”

그러자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날은 발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그녀는 들었던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군산 공군 기지를 향하여 힘닿는 대로 빨리 걸어갔다.

“여태까지 거기서 온 사람은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어. 그리고 전부 군대에 의해 폭격당한 거잖아. 공군 기지는 괜찮겠지!”

그녀가 말했다.

“논산을 생각해 봐.”

내가 지쳐서 말했다.

“우리 지역으로 온 사람 중에 논산 사람도 있었잖아. 거기에는 군대가 없나?”

이 말에 대해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다.

우리는 길을 잘못 드는 일을 반복했고, 결국 거의 한 달 동안 멀지 않다고 생각했던 군산에 도착하지 못했다. 주변에 쓰레기 더미도 많고 황폐화되어 예전 모습을 거의 잃은 곳들 투성이였기 때문이다. 점점 시간은 지나갔고, 그녀의 배는 불러왔다. 몇 달 남지 않은 시기였다.

그리고 바라던 군산에 들어서자, 우리는 더욱 희망을 버렸다. 군산은 바다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황폐한 모습을 띠었다. 사람이라곤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거리를 따라 반쯤 부패한 시체와 뼈가 다 드러난 짐승들이 줄지어 있었다. 폐허를 지나서 바다로 향하려는데,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근처에 문이 모두 망가진 편의점에서 아직 성한 우산을 찾아 쓰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겨우겨우 헤쳐 나갔다.

“군산 공군 기지요? 아서요. 아서. 거긴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비틀거리며 우리 곁을 지나가던 한 여자가 놀라서 말했다.

“그래도 계속 갈 거야?”

폭탄처럼 떨어지는 비에 힘겹게 우산을 받치고 서 있는 그녀에게 내가 물었다.

“그럼, 내 눈으로 직접 봐야지.”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옥산 방향의 군산항선 철도, 아니 철도였던 곳 가운데 남아 있는 곳으로 갔다. 철도는 뒤틀려있었고, 몇 개는 엇가락처럼 휘어있었다. 이 근처에도 폭격이 있었던 것 같다. 자갈길이라 울퉁불퉁해서 걷기 힘들었다. 군산 공항 쪽으로 가면 갈수록 주변 풍경은 더욱 물결치고 있었다. 마치 도로가 녹아 버린 것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안전한 편이었다. 도로의 곳곳이 붕괴해 있고, 싱크홀이 난 곳도 있었다. 철도는 심한 폭우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보호해 주었다.

우리는 반쯤 부서진 기차역 화장실에서 서로 몸을 바짝 붙인 채 잠을 청했다. 화장실은 옛날에 주차장이었던 곳에 있었는데, 화장실 위엔 나무들이 꺾인 채 쓰러져 있었다.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지만, 나는 신음하며 잠을 잤다. 그리고는 날이 밝기도 전에 벌써 깨어났다. 그날 밤에 나는 잠을 조금밖에 자지 못했다. 우리의 도착지에 대한 생각이 내 머릿속을 어지럽혔기 때문이다. 그녀가 믿고 있는 걸 그대로 믿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결국 내 예상이 입증되리란 걸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반쯤 뺏뺏하게 굳은 몸으로 햇빛에 기어 나왔을 때였다. 쾌청한 하늘 아래 사방으로, 아무도 없는 도시 전경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었다. 막 해가 떠오른 뒤였다. 우리는 물웅덩이를 침범거리며 가야 했다. 그녀는 나에게 농담까지 할 정도로 기분이 최고로 좋은 상태였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 없이 유모차를 밀었고, 말을 건네기조차 어려웠다.

그곳으로 가는 길에 우리는 단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 우리밖에 없었다. 옥구저수지에 도착했다. 그곳 앞에 공항이 있었다. 그녀는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했다 나는 말없이 그녀 뒤에서 유모차를 밀고 갔다. 나는 그녀를 따라가기 위해 애를 썼다. 많은 짐을 지고 유모차를 끄는 일은 무척 힘이 들었다.

“이제 곧 보일 거야.”

그녀는 소리치면서 공항 이쪽저쪽을 살펴보았다. 그곳은 무척 단조로워 보였다. 약간 기운 것 같았다.

“여기가 군산 공항이야. 이 옆에 미 공군 기지도 있겠지.”

내가 말했다.

나는 그녀의 눈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손을 들었다가 다시 떨어뜨렸다. 잠시 후, 그녀가 말했다.

“저거 뭐야?”

9.

우리는 그곳에서 무언가 보았다. 맨홀 뚜껑이 들썩거리더니, 수많은 바퀴벌레가 그곳에서 튀어나왔다. 마치 물이 넘쳐흐르듯이 말이다. 온갖 오물이 침범거리며 튀었다. 그 순간 엄청난 양의 지렁이 같은 것들이 흘러나왔다. 우리는 겁에 질려 그곳에서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고통 그 자체였다. 그녀는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내가 보기에 그녀는 더 이상 걷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반복하여 멈추어 서서는, 배를 만지며 중얼거렸다.

“아기가 정말로 발길질이 세차네.”

그것이 감탄이었는지 원망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나는 결국 알지 못했다.

익산에는 전염병이 돌고 있었다. 곳곳에서 시체를 가지고 가는 행렬이 보였다. 많은 마을에 철조망이 둘러 있었다. 단 한 군데서도 얻어먹을 수 없었다. 이전에는 약탈해서라도 음식을 얻었지만, 약탈할 집조차도 보이지 않았다.

내 배낭은 텅 빈 것이나 다름없었다. 벌써 며칠 전부터 우리는 말린 사과 조각과 버섯만 씹어 먹었다. 다른 것들은 이미 오래전에 다 먹어 버렸다. 남아 있는 것이라곤 시든 배추뿐이었다. 목이 마르면, 이전에 받아두었던 빗물을 먹었다. 계속해서 목이 말랐다.

내가 개 한 마리를 때려잡았다. 뭇 좀 얻어먹으려고 우리 다리로 기어오른 굶주린 개였다. 나는 개를 삶거나 구우려고 했지만, 불을 얻을 곳이 없었다. 며칠 동안 나는 뺏뺏하게 굶은 개를 배낭에 넣고 다녔다. 마침내 우리는 시체 구덩이에서 타오르는 불을 얻어 개를 구워 먹었다.

개를 손질하던 그녀가 구역질을 하기 시작했다.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을 해 본 적이 없었다. 나도 역시 먹은 것을 모조리 토해 버렸다. 우리 위장은 그렇게 기름진 식사를 소화해 내지 못했다. 우리는 온갖 종의 개고기로 며칠을 더 날 수 있었다. 하지만 난 개고기만 보면 구역질부터 났다. 그녀는 덜 한듯했다. 어차피 많이 먹지도 않았다.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질긴 고깃덩어리를 씹어서 연하게 만들어 먹었다.

그 벌레들은 무엇이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벌레가 홍수처럼 바닥에 밀려들었다. 나는 식겁하여 유모차를 버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마치 쓰나미처럼 엄청난 속도로 그 지렁이들은 쏟아졌다. 우리는 높은 언덕을 오르며, 뒤를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서로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각자 깊은

생각에 잠겨 앞만 보고 걸었다. 우리 머릿속에서 오가는 생각들은 더 이상 분명하지 않았다. 우리는 모두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나는 앞장서 걸었다. 이제는 비어버린 여행 가방을 메고 걸었다. 그녀는 내 뒤에서 몸을 끌다시피 하며 따라왔다. 그녀는 나에게 이끌려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5월 말까지 계속 느릿느릿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매일 몇 킬로미터도 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거리를 나아갔다. 어지간한 잠자리가 있으면, 그냥 누워 버린 날들도 많았다.

전주를 앞에 두고 그녀가 쓰러졌다. 나는 가방을 아무 곳에나 던지고 그녀를 침낭으로 싸서 또 다른 침낭 위에 눕혔다. 여행 가방은 놓고 갈 수밖에 없었다.

고향을 앞두고 첫 번째 진통이 시작되었다. 그녀가 그 사실을 말하자, 나는 달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폭우가 다시 쏟아졌음에도 우산도 쓰지 않고 달렸다. 추위에 떠는 그녀를 위해 나는 담요로 그녀를 감싸주었다.

“안 돼. 그 담요는 안 돼. 그게 젖으면 뭘로 아기를 덮어줘.”

그녀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자 나는 속에 입은 셔츠를 벗어서 그녀의 몸에 펼쳐 주었다. 나는 매우 추웠다.

“출산 직전인 여자가 있습니다! 벌써 첫 번째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대체 인간의 도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나는 소리치며 절규했다. 그러나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나는 분노하여 격하게 울부짖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갔다. 고향은 죽은 듯이 조용했다. 나는 그녀를 앞서 달려 나갔다. 몇 주일이나 갈아입지 않은 옷이 젖어서 살갗을 문질러 쓰리고 아팠다. 발걸음을 땀 때마다 다리가 아파 왔다. 나는 고향 집 앞마당에 도착했다. 벌써 저녁이 되었다. 마을, 이 마을에 아직 남아 있는 것들은 죽은 듯이 웅크리고 있었다. 화덕 구멍에서 나오는 흐린 불빛이 희미하게 깜박이는 게 몇몇 틈새로 보일 뿐이었다. 나는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다.

신발 끄는 소리가 들리더니 빠꼼히 문이 열렸다. 우리가 집을 맡긴 피란민이 미심쩍은 얼굴로 서 있었다.

“썩 꺼져. 여긴 아무것도 없어.”

그가 말했다.

“저예요! 이 집 주인이요! 절 모르시겠어요? 제가 돌아왔어요!”

나는 소리쳤다.

“뭘?”

그는 낯이 나간 표정으로 물었다. 그는 무척 놀란 듯했다.

“하지만 너는 오래전에.”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누구세요?”

집 안에서 어린아이 목소리가 들렸다.

“이 집 주인이 돌아왔단다.”

그가 속삭였다.

그는 계속 손잡이를 붙들고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 한마디 없었다. 그는 우리 할아버지 조끼를 입고 있었다.

“너는 다른 곳으로 떠났어. 그걸로 애긴 끝난 거야! 너는 어딘가에 더 잘 지낼 곳이 있다

고 생각했잖아.”

나는 그 사람에게서 약간 떨어졌다.

“우리는 약속 했잖아요! 내가 곧 돌아올 거라고요. 당신은 그때까지만.”

“그 일에 관해서 아는 건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그는 자기 뒤에서 호기심에 가득 찬 얼굴로 밖을 내다보고 있던 작은 여자아이를 뒤로 밀었다.

“그런 약속 같은 건 기억 안 나. 그냥 ‘이 집에서 살아도 됩니다.’라고 말했을 뿐이야.”

“그런 법이 어딴어요? 그때 분명히 그랬다고! 그리고 여긴 우리 할아버지 집이야. 그러니까 내 거라고!”

나는 소리를 질렀다.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 너는 아직도 모르나 보지? 누구든 필요하면 빼앗는 시대야. 이 집을 내놓느니 차라리 불을 질러 버리겠어. 니 여친한테 전해. 왜냐하면 말이지, 그건 우리한테 죽음이니까. 문 닫아! 비 올 것 같으니까.”

그가 말했다.

나는 문과 문지방 사이에 발을 밀어 넣었다.

“하지만 곧 아기가 태어난다고요!”

나는 소리를 질러 댔다.

“발 치워!”

그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나는 발을 뺐다. 찰칵 하고 문이 닫혔다.

나는 이웃에 있는 몇 집도 문을 두들겨 보았다. 대부분의 집이 원래 비어 있었지만, 노숙자들이 이미 그곳들을 꿰차고 있었다. 그들은 처음엔 문도 열어 주지 않았다. 할머니 한 사람만 빠끔히 연 문틈 사이에 대고 우물거리며 말했다.

“우리도 한방에 12명이나 살고 있어. 하지만 불이 필요하면 불씨 정도는 줄 수 있단다.”

할머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얼굴이었다. 고향 근처에서 온 노숙자 가운데 한 명이 틀림없었다.

나는 어스름 속에 서서 막막한 마음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갑자기 교회가 떠올랐다. 나는 그곳으로 달려갔다. 벌거벗은 그루터기가 뽕얇게 재를 뒤집어쓴 채 높은 나무들 사이에 남아 있었다. 나는 성안에 있는 방들을 이방 저방 살펴보았다. 지난 겨울에 나온 오물들이 아직도 바닥에 들러붙어 있었다. 열려 있는 커다란 창으로 비가 들어쳤다. 비가 텅 빈 홀과 고급 나무 장식이 있는 계단을 돌아다니며 울부짖는 소리를 냈다. 안돼. 여기에서 그녀를 놓칠 수는 없어. 바깥의 웅덩이에 자리를 마련하는 거나 다름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더듬거리며 지하실로 내려갔다. 그곳은 무척 캄캄했다. 하지만 바람이나 비는 거의 새어 들어오지 않았다. 피부로 느낄 정도로 바깥이나 위보다 따뜻했다. 나는 구석진 곳을 더듬어 보았다. 예전에 죽은 세 아이가 벽에 기대어 앉아서 서로 껴안고 쓰다듬어 주던 곳이었다. 이제 그 아이들은 없었다. 나는 담요를 가져와 깔고 그런 다음 그녀에게 달려갔다.

아기는 밤에 태어났다. 내가 마을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불씨를 주겠다고 한 할머니를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애를 쓰고 있을 때 아기는 세상에 태어났다.

하지만 나는 그 집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런 데다가 그 사이 밤이 되었다. 한 사람도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 누구나 낯선 사람을 두려워했다. 순전히 배고픔 때문에 더 이상 무서울 것도 없고, 살인도 마다하지 않을 듯한 낯선 사람을 말이다.

더듬거리며 어두운 지하실로 다시 돌아왔을 땐 이미 텃줄을 자른 뒤였다.

“여자이이야. 태린이라 불러.”

윤태양이 어느샌가 들어와서 출산을 도와주었던 것 같다. 그는 매트리스를 그녀의 밑에 깔아 주었다. 그런데 피가 잔뜩 묻어 아기에게 깔아 줄 수는 없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별장이 생각나 그곳으로 향했다.

나는 별장으로 달려가서 어둠 속을 더듬거렸다. 그곳에는 쓸만한 것이 보이지 않았다. 아무래도 여기도 약탈당한 것 같았다. 누군가 들어와 있으면 어떡하지 싶었다. 왜 아무도 없지? 하고 의문스러웠다. 그런데 한쪽 방에서 썩은 내가 진동했다. 더듬거리보니 칼에 박힌 사람이 부패하고 있었다. 할머니도 얼굴에 칼을 맞아 쓰러져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치다, 넘어졌다. 그러다가 장롱 위에 이불을 보고 그것만 챙겨서 밖으로 나왔다. 그것으로 갓난아이에게 어느 정도 부드럽고 건조한 잠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나는 이불을 들고 지하실로 돌아왔다.

윤태양은 태어난 그대로 씻기지도 못한 아기를 이불로 감싸더니 내 팔에 안겨 주었다.

나는 벽에 몸을 기대 뒤 무릎을 한껏 끌어올렸다. 나는 작은 아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움직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이불 덕분에 나도 따뜻해졌다. 나는 깨어 있으려고 무진 애를 썼다. 가슴과 무릎 사이 우묵한 곳에 아기가 놓여 있었기 때문에, 쉽게 미끄러져 내릴 수는 없었다. 나는 아기가 숨이 막히지 않도록 조심해서 돌보았다.

아기가 ‘응애’ 소리를 내며 울 때나 꿈지락거릴 때마다, 나는 이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다면 뭐든 하리라고 마음먹었다. 이토록 비참한 환경에서 태어나 좋은 시절이라곤 모르는 이 작고 의지할 데 없는 아이를 위해서라면, 나는 구걸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약탈도 하리라 다짐했다. 그래야 한다면!

나는 그녀와 닮은 그 애의 얼굴을 그려 보았다.

오래 앉아 있었던 데다가 추위 때문에 나는 완전히 뻗뻗하게 굳어 버렸다. 그녀 곁에서

윤택양이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 이따금 그녀가 신음하는 소리, 그리고 그들이 나직이 서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고 난 뒤, 그녀는 조용해졌다. 윤택양은 밖으로 나간 듯했다. 그녀는 기진맥진해서 쉬는 것 같았다. 그때 나는 불안하게 비몽사몽을 오가고 있었다.

아기가 다시 꿈지락거리는 바람에 나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넓은 채광창으로 벌써 어스름 새벽빛이 스며들었다. 새벽빛은 하얗게 아이를 감싸안았다.

나는 다시 아기에게로 고개를 숙였다. 다시 깨어났을 땐 그녀를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밝아져 있었다. 그녀는 침낭을 덮고 벽에 바짝 붙은 채 누워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두꺼운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여기저기 수건이 널려 있었는데, 모두 피에 흠뻑 젖어 있었다. 바닥도 피가 흥건했다. 그녀가 얼지는 않았는지 걱정되었다. 그녀는 얼굴을 내 쪽으로 하고 누워 있었다. 깊이 잠든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여 푸른 빛이 감돌았다.

할아버지의 별장이 떠올랐다. 그리로 가야할까 고민이 들었다. 앞으로 아이와 그녀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너무나 고민이 들었다. 모든 것이 지나간 지금, 그녀가 다시 걷게 되는 즉시 나는 별장을 치워서 아늑한 보금자리로 만들 것이었다.

이불에 놓인 할머니 이름 자수가 보일 정도로 밝아지자, 나는 호기심에 가득 차 아기의 머리를 덮었던 이불을 약간 옆으로 밀쳤다. 그러고는 자그마한 얼굴을 보기 위해 아이 머리를 약간 돌려놓았다.

나는 온몸이 굳어 버리고 말았다. 비명도 지를 수 없었다. 그냥 얼어붙은 채로 앉아 있었다. 내 작은 아이는 눈이 없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피부, 그냥 보통 피부밖엔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코와 내 가슴을 이리저리 찌르며 빨려고 했던 입만 있었다. 너무도 강한 전율이 온몸을 굳게 만들어, 나는 아기가 발버둥을 치며 배개를 건어차 버렸을 때, 다시 감싸 주는 것조차 하지 못했다. 아기는 아무것도 걸치지 못하고 피투성이인 채로 누워 있었다. 그리고 아이의 배가 유난히 볼록하고 움직이는 것도 눈에 들어왔다.

“야.....”

나는 소곤거리며 그녀를 불렀다. 나는 그제서야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았다. 나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땀으로 온몸이 흠뻑 젖고 의식을 잃을 때까지 비명을 지르고 또 질렀다.

그녀는 피를 너무 많이 흘린 듯했다. 본인도 그걸 알고 있었겠지. 정말 조용하게 숨을 거두었다. 슬펐다. 그리고 슬퍼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게 되지 않았다. 이미 어떤 부처가 나를, 죽음 앞에 너무 의연한 자로 만들어 둔 까닭이다. 다시 보니 그것은 관용이 아니라, 가장 지독한 방식의 복수였나보다.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교회 예배당 한가운데서 들려왔다. 나는 그 아기를 집어 들었다. 아기의 배 속은 요동쳤다. 마치 또 다른 생명이 깨어날 것처럼.

난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 이후 무엇을 했는지. 나에겐 영원 같은 시간이었다.

나는 구덩이에서 나와서 저수지로 향했다. 나의 손에는 여전히 이불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속에선 우는 소리도,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숲속 너머에선 시체가 타는 냄새가 났다. 정말 지독한 냄새였다.

여름이 되자, 벌레들은 땅 밑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 우리를 지탱하던 땅이 모두 벌레들이었는지, 대부분의 땅이 움푹 꺼져버렸다. 군산에서 보았던 벌레 쓰나미는 전주를 덮쳤고, 이젠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곧 이곳, 고향도 벌레로 덮일 것이었다.

젊은 윤태양은 여름 내내 빨간 스포츠카를 손질하고 문질러 닦았다. 그 차는 불에 타버리지도, 파편에 눌리지도 않았다. 그리고 차고도 아직 그대로였다.

“뭐 하러 닦는 거야? 이젠 차를 타고 다닐 수도 없잖아.”

사람들이 그렇게 물으면, 그는 그냥 웃기만 했다. 그는 죽은 사람들을 태우는 일을 돕지 않을 때면, 손수레를 밀고 나와 거리에 널려 있던 쓰레기들을 치웠다.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왔다. 6월이 되고 나서는 이곳 사람들은 도로를 완전히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떠날 수 있었다. 모두 윤태양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마을이 더 이상 생기 없이 고요해질 무렵, 벌레들이 득실거리기 몇 일전, 나는 진기한 광경을 보게 되었다.

도로가 깨끗하게 정리되자, 윤태양은 반들반들하게 광을 낸 자동차를 차고에서 꺼내 몰았다. 차 오디오의 볼륨을 끝까지 올리고, 자기가 치워 뚫어 놓은 네거리를 몇 시간째 계속 반복하여 뱅뱅 돌았다. 나는 그를 멈춰 세우고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차에 치일 뻔했다. 그는 아무 말도 듣지 않았다. 그는 차를 몰고 또 몰았다. 점점 속도를 올려 금방 이 길 끝에서 저 길 끝까지 갔다 오곤 했다. 평소 같았으면, 이 광경을 모두가 신기해서 쳐다볼 터였지만, 마을은 놀랍도록 고요했다.

자동차다! 음악 소리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렸다. 나에게 빨간 스포츠카는 기적이었다.

그 음악은 나에게 감동을 주었다. 나는 항상 밴드 음악에 열광했다. 나는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가장 싫어했다. 지금 그의 자동차가 내 앞을 지날 때마다 들리는 크고 작은 노랫소리에 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한결같이 오래되고 귀에 익은 노래들이었다. 노래들이 계속 반복하여 흘러나왔다. 나는 굶주린 배도 잊고 그 노래를 놓치려고 하지 않았다. 기름이 거의 다 떨어지자, 그는 똑바로 직진하더니, 전속력을 다해 그가 살던 집으로 차를 몰았다. 그의 멋진 차에서 불길의 솟구쳐 올랐다. 그는 차 안에서 불타 죽었다. 아마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던 것 같다. 불타고 있는 그의 차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더니, 이상야릇한 한숨 소리 같은 걸 내면서 사라졌다.

나는 한참 동안 보다가 불씨를 가지고 교회로 돌아갔다.

나는 이불을 찢어 꼬아서 두껍게 밧줄을 엮었다. 누구도 말리는 이 없이 고요했다. 나는 굵은 가지를 가진 나무에 다가갔다. 나는 감추었던 밧줄을 꺼내어 높이 던졌다. 오랜 시간이 걸려 만든 밧줄이었다. 동그랗게 매듭을 지어 고리를 만들었다. 나는 그 고리 속에 머리를 집어넣었다.

나는 내가 내 결정으로,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문득 시야에, 군인들이 보인다. 보이는 것 같다. 그들도 나를 보았나, 모르긴 몰라도, 이 쪽을 응시하는 듯하다. 그들의 광경은 웅장했다. 멋있었다. 내가 몇 달간 본 사람들은, 복색이라곤 거의 갖추지도 못하고, 죽은 듯한 몰골로 있던 사람들뿐이기에, 군복을 입고 줄 맞춰 걷는 그들은 더욱 웅장했다. 멋있었다. 성인이 되면 군대에 가야 한다는 사실에, 내가 다 크기 전에 사라졌으면 하던 군대이건만, 밧줄 고리가 내 삶을 유예한 그 찰나에, 그것은 세상에서 가진 마지막 소망 같은 것이 되었다. 군인들과 나의 거리는, 서로에게 말한다고 들릴 거리가 아니었다. 그렇지만 내 귀는 기어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그들의 소리여야만 했다. 용기 없는 자라더라, 비겁한 자라더라. 행복하던 때에는 삶을 등질 용기조차 내지 못하고, 가장 힘들 때는 그것을 견딜 용기조차 내지 못하는, 용기 없고 비겁한 자라더라. 그것은 그들의 소리여야만 했다. 그들은 모욕했다. 나를 모욕했다. 내 사람들을 모욕했다. 벌레로, 독감으로, 스포츠카로, 구멍으로, 불씨로 사라진 아름답고 그리운, 더없이 치열한 정신들을 모욕했다. 이제 숨이 끊어지기 직전인가. 나는 그녀를 떠올렸다. 앞날을 알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 놓였음에도, 처음부터 의연했고 끝에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들 기준에서 '용기 있는' 사람이던 그녀를 떠올렸다. 하늘에서? 혹은 지하에서, 나를 다시 만나면 혹 그녀는 나를 무어라고 평가할까?...

교회는 가장 자비로운 곳이라던가, 그곳에서 나는, 아직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괴리되었고, 생애 마지막 '소망'에게 조롱당하고, 부처에게는 복수를 당하며, 나를 덮은 모욕과 함께 땅 아래에서 썩는다.